

Policy

ISSUE

2018  
정책이슈리포트

서해안권 개발관련  
연계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U

E

REPORT



# 서해안권 개발관련 연계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연 구 진

박 승 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CONTENTS

## I) 인천광역시 사회·경제 현황

- 1. 사회현황 ..... 04
- 2. 경제현황 ..... 16

## II) 관련계획 검토 및 현안 도출

- 1. 관련계획 ..... 25
- 2. 현안문제 및 발전 방향 ..... 32

## III) 주력산업 선정 실증 분석

- 1. 국가 및 서해안권 성장을 고려한 주력산업선정 ..... 42
- 2. 인천광역시 산업 특성을 고려한 특화 산업 도출 ..... 50
- 3. 인천광역시 주력산업부문 선정 ..... 54

## IV) 서해안권 다지역 산업연계 분석

- 1. 서해안권 산업구조를 반영한 인천 중심 서해안권 다지역산업연계분석 ..... 60
- 2. 서해안권 다지역산업연계모형 분석결과 ..... 63
- 3. 주력산업부문의 영향력 분석 ..... 68

## V) 서해안권 사업 활성화 및 상생발전 방안

- 1. 사업 활성화 방안 ..... 72
- 2. 상생발전 방안 ..... 76



# I 인천광역시 사회·경제 현황

## 1. 사회현황

### 1) 인구

#### (1) 서해안권 인구변화

##### 총인구

- 인천의 총인구는 1998년 2,485천 명에서 2008년 2,693천 명, 2018년 2,955천 명으로 전국 대비 1998년 5.29%, 2008년 5.44%, 2018년 5.70%로 나타남
- 1998년 대비 2018년 인천의 총인구는 18.9%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경기 50.8%, 충남 11.1%, 전북 -8.6%, 전국 10.3%의 변화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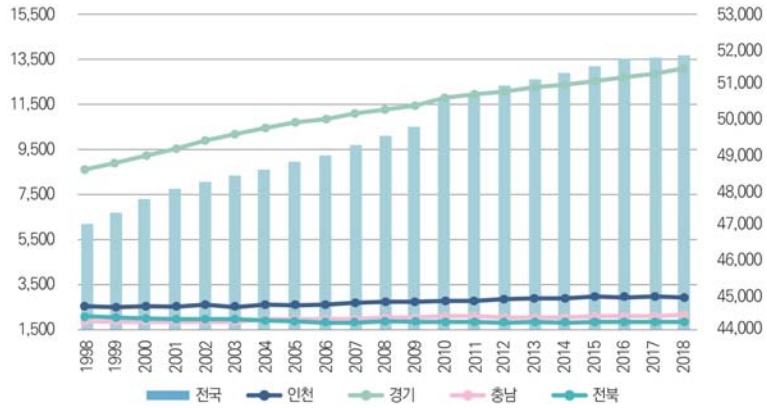
#### 서해안권 인구변화

단위 : 천 명

구 분	1998	2003	2008	2013	2018
인천	2,485	2,570	2,693	2,880	2,955
경기	8,673	10,207	11,292	12,235	13,077
충남	1,913	1,913	2,019	2,048	2,126
전북	2,009	1,954	1,856	1,873	1,837
전국	46,991	48,387	49,540	51,141	51,826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서해안권 총인구 변화 추이



서해안권 장래인구추계

- 인천의 중위추계 장래인구는 2020년 2,979천 명에서 2030년 3,152천 명, 2040년 3,180천 명, 2045년 3,136천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대비 2045년 인천의 장래인구는 5.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동 기간 충남(9.8%)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경기(2.5%), 전북(-4.6%), 전국(-1.8%)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의 장래인구성장률은 2020년 0.61%, 2030년 0.37%, 2040년 -0.14%, 2045년 -0.3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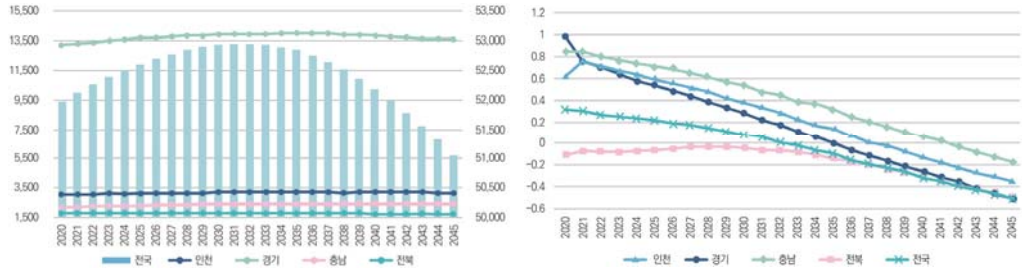
서해안권 장래인구 및 장래인구성장률 추계

단위 : 천 명, %

구분	장래인구				장래인구성장률			
	2020	2030	2040	2045	2020	2030	2040	2045
인천	2,979	3,152	3,180	3,136	0.61	0.37	-0.14	-0.37
경기	13,221	13,901	13,846	13,556	0.97	0.27	-0.28	-0.51
충남	2,204	2,363	2,430	2,421	0.85	0.54	0.06	-0.17
전북	1,824	1,810	1,778	1,739	-0.12	-0.06	-0.32	-0.51
전국	51,974	52,941	52,198	51,051	0.31	0.07	-0.32	-0.52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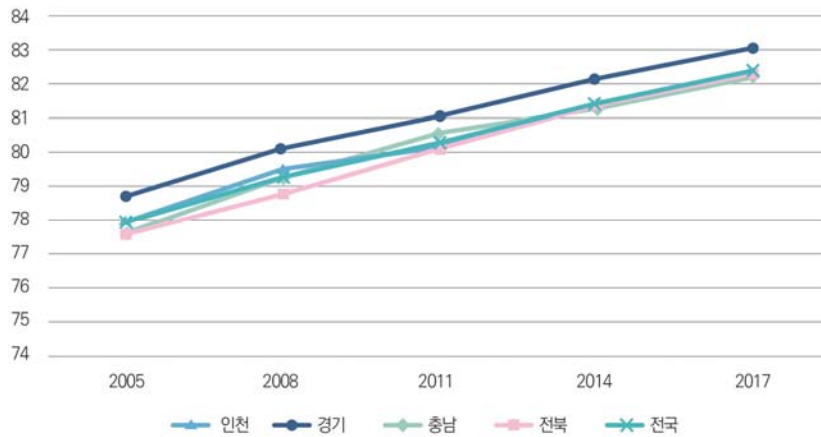
서해안권 장래인구 및 장래인구성장을 추계 변화 추이



(2) 서해안권 기대수명 변화

- 인천의 기대수명(0세의 기대여명)은 2005년 78세, 2008년 79.5세, 2011년 80.1세, 2014년 81.4세, 2017년 82.4세로 나타남
- 2005년 대비 2017년 인천의 기대수명은 4.4세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 경기(4.4세)와는 유사한 수준, 전국(4.5세), 충남(4.6세), 전북(4.7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서해안권 기대수명 변화 추이





### (3) 서해안권 인구요인 변화

#### 출생

- 인천의 출생건수는 1997년 38,103명, 2007년 26,712명, 2017년 20,445명, 합계출산율은 1997년 1.58명, 2007년 1.26명, 2017년 1.01명으로 나타남
  - 1997년 대비 2017년 인천의 출생건수는 -46.3% 감소하였고, 동 기간 경기 -34.2%, 충남 -36.2%, 전북 -56.8%, 전국 -47.0%의 변화를 나타냄
  - 1997년 대비 2017년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36.2% 감소하였고 동 기간 경기 -36.7%, 충남 -24.7%, 전북 -29.8%, 전국 -31.6%의 변화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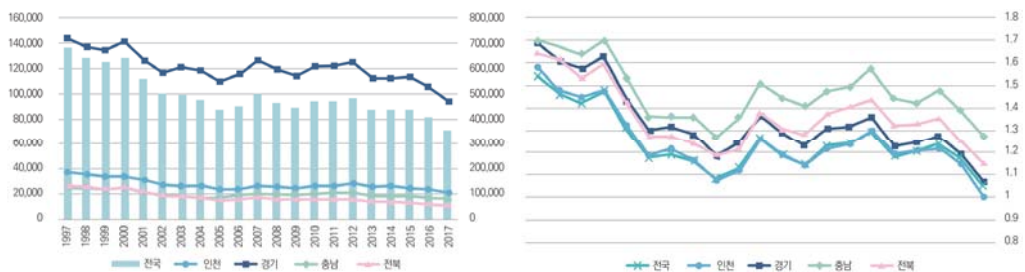
#### 서해안권 출생건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 명

구 분	출생건수					합계출산율				
	1997	2002	2007	2012	2017	1997	2002	2007	2012	2017
인천	38,103	26,775	26,712	27,781	20,445	1.58	1.19	1.26	1.30	1.01
경기	143,002	116,854	126,648	124,746	94,088	1.69	1.31	1.36	1.36	1.07
충남	24,551	19,059	20,630	20,448	15,670	1.70	1.36	1.51	1.57	1.28
전북	26,270	19,215	17,228	16,238	11,348	1.64	1.28	1.38	1.44	1.15
전국	675,394	496,911	496,822	484,550	357,771	1.54	1.18	1.26	1.30	1.05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 서해안권 출생건수와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 서해안권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 인천의 유소년인구(14세 이하 인구)는 1998년 593천 명에서 2008년 476천 명, 2018년 385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는 1998년 124천 명, 2008년 216천 명, 2018년 363천 명으로 나타남
  - 1998년 대비 2018년 인천의 유소년인구는 -35.0% 감소하였고, 동 기간 경기 -12.7%, 충남 -24.4%, 전북 -43.5%, 전국 -33.8%의 변화를 나타냄
  - 1998년 대비 2018년 인천의 고령인구는 193.3% 증가하였고, 동 기간 경기 239.8%, 충남 90.4%, 전북 89.0%, 전국 152.8%의 변화를 나타냄

#### 서해안권 유소년인구 및 고령인구

단위 : 천 명

구 분	유소년인구					고령인구				
	1998	2003	2008	2013	2018	1998	2003	2008	2013	2018
인천	593	546	476	428	385	124	161	216	282	363
경기	2,124	2,302	2,171	1,985	1,854	457	661	920	1,196	1,552
충남	382	367	348	310	289	196	244	294	320	373
전북	405	385	319	271	228	190	230	272	313	358
전국	10,014	9,624	8,519	7,433	6,629	3,027	3,905	5,069	6,251	7,650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 서해안권 유소년인구 및 고령인구 변화 추이



#### (4) 서해안권 생산인구 변화

##### 연령대별

- 인천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1998년 1,769천 명, 2008년 2,001천 명, 2018년 2,208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기준 15-24세 358천 명, 25-49세 1,139천 명, 50-64세 710천 명으로 나타남
  - 1998년 대비 2018년 인천의 15-24세 인구는 -6.9% 감소하였고, 동 기간 경기 28.9%, 충남 -29.1%, 전북 -40.4%, 전국 -22.6%의 변화를 나타냄
  - 1998년 대비 2018년 인천의 25-49세 인구는 1.2% 증가하였고, 동 기간 경기 30.4%, 충남 5.7%, 전북 -20.2%, 전국 -3.7% 변화를 나타냄
  - 1998년 대비 2018년 인천의 50-64세 인구는 174.3% 증가하였고, 동 기간 경기 221.0%, 충남 64.0%, 전북 45.8%, 전국 102.3%의 변화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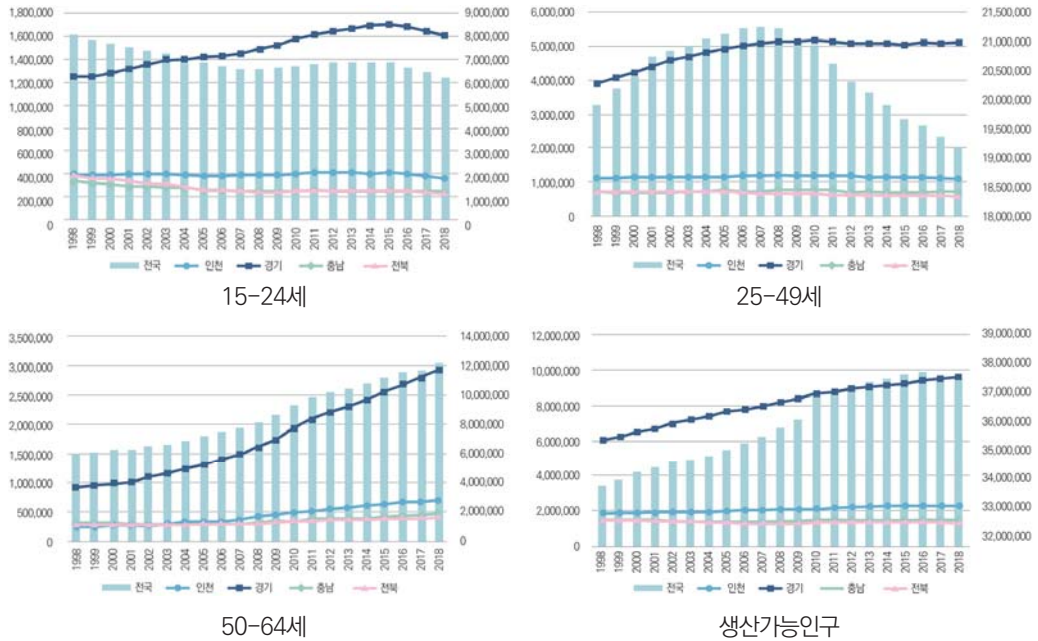
#### 서해안권 연령대별 생산인구

단위 : 천 명

구 분	15-24세			25-49세			50-64세		
	1998	2008	2018	1998	2008	2018	1998	2008	2018
인천	385	381	358	1,126	1,204	1,139	259	416	710
경기	1,247	1,475	1,607	3,929	5,110	5,123	916	1,616	2,941
충남	340	251	241	702	793	742	294	334	482
전북	381	243	227	734	699	586	300	323	437
전국	8,037	6,567	6,221	19,904	21,204	19,168	6,009	8,182	12,159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 서해안권 연령대별 생산인구 변화 추이



### 서해안권 성별 생산인구

- 인천의 남성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 900천 명, 2008년 1,023천 명, 2018년 1,132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 869천 명, 2008년 978천 명, 2018년 1,083천 명으로 나타남
  - 1998년 대비 2018년 인천의 남성 생산가능인구는 25.8% 증가하였고, 동 기간 경기55.8%, 충남 11.8%, 전북 -8.0%, 전국 12.2%의 변화를 나타냄
  - 1998년 대비 2018년 인천의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23.7% 증가하였고, 동 기간 경기61.9%, 충남 7.5%, 전북 -15.4%, 전국 8.9%의 변화를 나타냄

서해안권 성별 생산인구

단위 : 천 명

구분	남성			여성		
	1998	2008	2018	1998	2008	2018
인천	900	1,023	1,132	869	978	1,083
경기	3,106	4,189	4,837	2,987	4,012	4,619
충남	685	720	766	651	657	686
전북	719	653	662	696	612	617
전국	17,202	18,333	19,306	16,748	17,620	18,479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서해안권 성별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



(5) 서해안권 유입 및 유출인구

유입인구

- 인천의 유입인구는 1997년 513천 명, 2007년 577천 명, 2017년 409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유입인구는 1997년 21.0%, 2007년 21.6%, 2017년 13.9%로 나타남
- 1997년 대비 2017년 인천의 유입인구는 -20.1% 감소하였고, 동 기간 경기 -3.2%, 충남 1.9%, 전북 -28.8%의 변화를 나타냄

서해안권 유입인구

단위 : 천 명

구 분	유입인구					주민등록인구 대비 유입인구				
	1997	2002	2007	2012	2017	1997	2002	2007	2012	2017
인천	513	541	577	469	409	21.0%	21.0%	21.6%	16.5%	13.9%
경기	1,951	2,449	2,307	1,945	1,888	23.0%	24.7%	20.8%	16.1%	14.7%
충남	283	275	355	287	289	14.9%	14.4%	17.8%	14.2%	13.6%
전북	326	339	333	272	232	16.3%	17.3%	17.9%	14.5%	12.5%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유출인구

- 인천의 유출인구는 1997년 485천 명, 2007년 554천 명, 2017년 411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인구 대비 유출인구는 1997년 19.9%, 2007년 20.8%, 2017년 13.9%로 나타남
- 1997년 대비 2017년 인천의 유출인구는 -15.3% 감소했으며, 동 기간 경기 2.0%, 충남 0.0%, 전북 -29.7%의 변화를 나타냄

서해안권 유출인구

단위 : 천 명

구 분	유출인구					주민등록인구 대비 유출인구				
	1997	2002	2007	2012	2017	1997	2002	2007	2012	2017
인천	485	541	554	441	411	19.9%	21.0%	20.8%	15.5%	13.9%
경기	1,737	2,134	2,194	1,862	1,772	20.5%	21.5%	19.8%	15.4%	13.8%
충남	269	288	342	277	269	14.2%	15.1%	17.1%	13.7%	12.7%
전북	341	395	344	275	239	17.0%	20.2%	18.5%	14.7%	12.9%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서해안권 인구이동 변화 추이(좌 : 유입, 우 : 유출)



## (6) 서해안권 학령인구 변화

### 전체 학령인구

- 인천의 학령인구(6~21세 인구)는 1998년 615천 명, 2008년 598천 명, 2018년 482천 명으로 나타남
  - 1998년 대비 2018년 인천의 학령인구는 -21.6% 감소했으며, 동 기간 경기 10.2%, 충남 -25.9%, 전북 -39.6%, 전국 -27.1%의 변화를 나타냄

전체 학령인구

단위 : 천 명

구 분	1998	2003	2008	2013	2018
인천	615	625	598	551	482
경기	2,046	2,364	2,498	2,441	2,255
충남	471	424	409	377	349
전북	514	450	397	361	311
전국	11,543	11,038	10,440	9,601	8,410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 성별 학령인구

- 인천의 남성 학령인구는 1998년 317천 명, 2008년 311천 명, 2018년 249천 명, 여성 학령인구는 1998년 298천 명, 2008년 286천 명, 2018년 233천 명으로 나타남

- 1998년 대비 2018년 인천의 남성 학령인구는 -21.4% 감소했으며, 동 기간 경기 10.6%, 충남 -25.1%, 전북 -39.0%, 전국 -27.3%의 변화를 나타냄
- 1998년 대비 2018년 인천의 여성 학령인구는 -21.8% 감소했으며, 동 기간 경기 9.9%, 충남 -26.8%, 전북 -40.2%, 전국 -27.0%의 변화를 나타냄

### 성별 학령인구

단위 : 천 명

구분	남성					여성				
	1998	2003	2008	2013	2018	1998	2003	2008	2013	2018
인천	317	325	311	287	249	298	300	286	264	233
경기	1,053	1,228	1,301	1,269	1,165	993	1,136	1,198	1,172	1,091
충남	243	221	214	197	182	229	203	195	180	167
전북	264	234	207	188	161	250	216	190	173	149
전국	5,995	5,795	5,498	5,035	4,361	5,548	5,243	4,942	4,566	4,049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 (7) 서해안권 취업 및 고용 변화

### 취업자 수

- 인천의 취업자 수는 2000년 1,101천 명, 2010년 1,332천 명, 2018년 1,575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는 2000년 60.5%, 2010년 64.2%, 2018년 71.4%로 나타남
  - 2000년 대비 2018년 인천의 취업자 수는 43.1% 증가했으며, 동 기간 경기 67.0%, 충남 32.2%, 전북 8.4%, 전국 26.7%의 변화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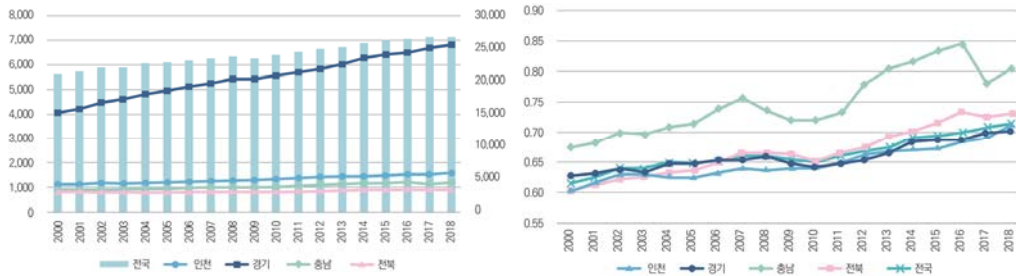
❑ 취업자 수 ❑

단위 : 천 명

구 분	취업자 수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				
	2000	2005	2010	2015	2018	2000	2005	2010	2015	2018
인천	1,101	1,190	1,332	1,488	1,575	60.5%	62.6%	64.2%	67.6%	71.4%
경기	4,067	4,960	5,556	6,393	6,790	62.7%	64.8%	64.1%	68.8%	70.2%
충남	892	954	1,029	1,199	1,179	67.3%	71.3%	72.0%	83.4%	80.5%
전북	844	823	839	922	915	60.5%	63.8%	65.2%	71.9%	73.2%
전국	21,173	22,831	24,033	26,178	26,822	61.5%	64.9%	65.0%	69.5%	71.4%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 취업자 수 변화 추이 ❑



고용변화

- 인천의 고용률은 2000년 58.2%, 2010년 59.6%, 2018년 62.9%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2000년 5.4%, 2010년 5.0%, 2018년 4.3%로 나타남
  - 2000년 대비 2018년 인천의 고용률은 4.7%p 증가했으며, 동 기간 경기 2.2%p, 충남 2.4%p, 전북 1.8%p, 전국 2.2%p 증가
  - 2000년 대비 2018년 인천의 실업률은 -1.1%p 감소했으며, 동 기간 경기 -0.1%p, 충남 0.3%p, 전북 -0.4%p, 전국 -0.6%p 감소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구분	고용률					실업률				
	2000	2005	2010	2015	2018	2000	2005	2010	2015	2018
인천	58.2	58.9	59.6	61.1	62.9	5.4	4.5	5.0	5.0	4.3
경기	59.8	60.5	59.2	61.7	62.0	3.9	3.8	4.0	3.9	3.8
충남	61.1	62.7	60.2	62.3	63.5	2.8	2.7	3.0	3.5	3.1
전북	56.5	57.5	57.0	59.2	58.3	3.1	2.5	2.2	1.7	2.7
전국	58.5	59.9	58.9	60.5	60.7	4.4	3.7	3.7	3.6	3.8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서해안권 고용변화 변화추이(좌: 고용률, 우: 실업률)



## 2. 경제현황

### 1) 서해안권 소비재별 소비 변화

#### 가계소비지출(2010년 기준 ppp)

- 인천의 가계소비지출은 1996년 2,051백억 원, 2006년 2,666백억 원, 2016년 3,496백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임료 및 수도광열 품목의 지출금액이 596백억 원(1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 505백억 원(14.4%), 기타 458백억 원(13.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452백억 원(12.9%) 등 순으로 나타남
  - 1996년 대비 2016년 인천의 가계소비지출은 70.4% 증가했으며, 동 기간 경기 135.3%, 충남 85.5%, 전북 36.0%, 전국 64.9% 증가

- 1996년 대비 2016년 인천의 소비재별 가계지출은 통신이 429.7%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의료보건 189.8%, 오락문화 177.9%, 교통 98.5% 등 순으로 나타남

서해안권 품목별 가계소비지출

단위 : 백억 원

구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1996	2006	2016	1996	2006	2016	1996	2006	2016	1996	2006	2016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402	356	452	1,225	1,606	2,249	241	281	353	279	246	266
주류 및 담배	58	67	75	190	289	347	43	54	61	47	43	43
의류 및 신발	156	177	196	439	748	967	109	127	147	133	120	135
임료 및 수도광열	355	503	595	1,315	2,392	3,026	215	326	408	233	275	316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112	101	112	389	412	491	48	70	81	77	58	64
의료보건	70	98	202	230	417	832	57	86	183	68	80	161
교통	254	305	505	841	1,416	2,163	201	234	410	224	207	309
통신	28	122	147	86	503	625	15	63	78	19	69	80
오락문화	115	208	319	449	996	1,583	83	149	252	64	110	168
교육	102	147	150	422	846	791	167	184	168	116	129	116
음식숙박	160	220	284	574	1,005	1,276	83	158	197	92	125	154
기타	239	362	458	876	1,443	2,206	207	262	388	196	229	294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서해안권 품목별 가계소비지출 변화 추이



서해안권 정부소비지출(2010년 기준 ppp)

- 인천의 정부소비지출은 1996년 422백억 원, 2006년 674백억 원, 2016년 1,060백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보건복지 및 환경이 390백억 원(36.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 및 오락문화 249백억 원(23.5%), 일반행정 및 국방 222백억 원(21.0%) 등 순으로 나타남
- 1996년 대비 2016년 인천의 정부소비지출은 151.4% 증가했으며, 동 기간 경기 189.1%, 충남 218.3%, 전북 107.4%, 전국 189.1% 증가
- 1996년 대비 2016년 인천의 부문별 정부소비지출은 보건복지 및 환경이 400.6%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171.5%,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 122.8%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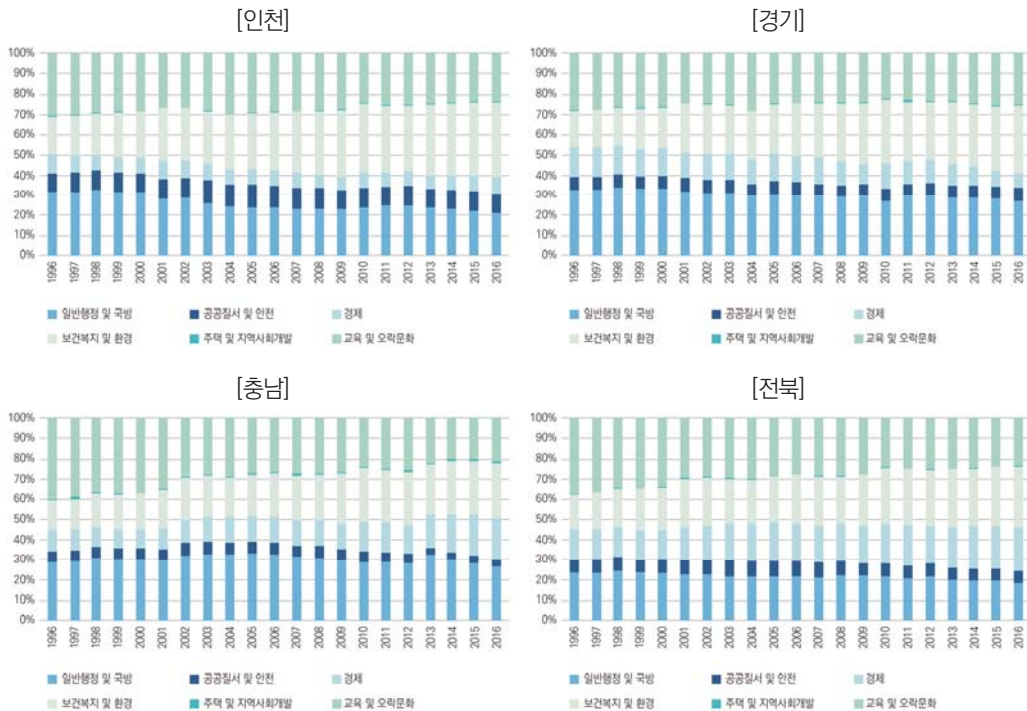
부문별 정부소비지출

단위 : 백억 원

구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1996	2006	2016	1996	2006	2016	1996	2006	2016	1996	2006	2016
일반행정 및 국방	133	158	222	479	870	1,139	146	261	432	119	163	194
공공질서 및 안전	41	81	111	97	185	286	30	48	66	36	57	62
경제	38	50	83	210	359	304	52	102	326	76	142	231
보건복지 및 환경	78	190	390	254	737	1,375	75	172	436	87	179	317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2	2	4	7	10	21	3	4	15	2	2	4
교육 및 오락문화	130	193	249	398	688	1,054	202	213	344	189	206	246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부문별 정부소비지출 변화 추이



## 2) 서해안권 산업 변화

### 서해안권 산업별 사업체 수

- 인천의 사업체 수는 2006년 1,554백 개, 2011년 1,694백 개, 2016년 1,916백 개로 나타났으며, 2016년 기준 전체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 24.0%, 숙박 및 음식점업 17.9%, 운수업 12.7% 등 순으로 산업별 사업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대비 2016년 인천의 사업체 수는 23.2% 증가했으며, 동 기간 경기 38.4%, 충남 26.7%, 전북 24.1%, 전국 22.4% 증가
  - 2006년 대비 2016년 인천의 산업별 사업체 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9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9.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73.8% 등 순으로 증가

### 서해안권 산업별 종사자 수

- 인천의 종사자 수는 2006년 7,451백 명, 2011년 8,484백 명, 2016년 10,048백 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종사자 중 제조업 24.6%, 도매 및 소매업 13.9%, 숙박 및 음식점업 10.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4% 등 순으로 산업별 종사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1996년 대비 2016년 인천의 종사자 수는 34.9% 증가했으며, 동 기간 경기 51.8%, 충남 45.5%, 전북 38.8%, 전국 37.7% 증가
  - 1996년 대비 2016년 인천의 산업별 종사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6.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2.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2.5% 등 순으로 증가

서해안권 산업별 사업체 수

단위 : 백 개

구 분	2006				2011				2016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국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국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국
전체	1,554	6,188	1,275	1,188	32,266	1,694	7,209	1,405	1,287	34,700	1,916	8,562	1,616	1,475	39,502
농업, 임업 및 어업	0.2	1.6	2.4	1.8	21.9	0.2	2.1	2.5	2.3	24.5	0.3	4.1	3.8	4.0	36.4
광업	0.3	1.1	1.2	0.8	17.9	0.3	1.0	1.1	0.9	17.9	0.3	1.0	1.1	1.1	20.1
제조업	208.8	862.9	116.8	92.6	3,315.2	209.2	962.0	126.4	96.8	3,409.1	242.5	1,259.8	161.7	117.7	4,164.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7	2.2	0.9	1.1	15.6	0.7	1.9	1.1	1.3	15.3	0.7	2.8	1.4	1.7	21.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8	11.8	2.6	2.1	47.0	3.3	14.1	3.4	2.7	59.1	4.3	20.4	4.8	3.8	79.5
건설업	38.6	171.2	39.0	33.4	905.1	47.1	211.4	47.5	42.4	1,040.2	55.1	282.6	64.3	56.3	1,360.7
도매 및 소매업	384.3	1,431.7	343.5	340.6	8,650.5	408.5	1,666.9	366.0	357.1	9,038.0	460.0	2,020.2	411.9	402.7	10,193.9
운수업	191.8	638.8	100.1	119.1	3,399.5	210.7	743.8	117.2	118.8	3,539.8	242.4	847.5	133.3	139.4	3,858.4
숙박 및 음식점업	287.4	1,146.3	287.9	216.3	6,217.0	307.3	1,282.2	305.6	232.2	6,553.5	343.0	1,456.3	345.9	262.8	7,294.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	28.9	5.5	6.2	244.4	5.9	38.9	6.0	6.9	300.3	8.6	65.8	7.7	8.0	424.7
금융 및 보험업	14.0	54.0	14.5	14.4	356.5	15.9	66.7	16.6	16.3	406.8	17.2	69.3	16.7	17.1	427.1
부동산업 및 임대업	65.7	325.4	38.5	28.5	1,204.4	73.5	351.5	45.0	35.4	1,294.3	78.9	397.0	52.8	45.4	1,588.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1	101.5	17.1	17.4	605.3	26.1	140.0	20.4	20.6	764.6	33.2	188.9	28.8	28.6	1,027.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3	45.6	10.1	8.4	289.0	16.9	73.8	15.4	13.6	405.7	21.7	96.6	21.3	18.1	52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5	16.5	9.0	9.1	124.5	4.5	17.1	7.7	8.9	119.4	4.8	18.3	7.6	9.0	124.5
교육 서비스업	60.8	311.1	55.7	64.3	1,490.7	70.1	378.5	62.5	73.0	1,700.5	77.0	420.0	65.1	75.9	1,80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1	175.7	32.9	36.0	830.8	51.5	258.2	48.4	49.9	1,132.7	68.4	323.1	59.1	60.0	1,38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2.8	200.9	37.8	32.9	987.9	58.7	227.7	39.1	33.9	1,035.4	60.8	249.9	44.2	37.9	1,104.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68.2	660.6	160.2	163.2	3,542.8	184.0	770.9	173.3	174.3	3,843.4	196.5	838.1	184.8	185.9	4,069.9

서해안권 산업별 증하자 수

단위 : 백 명

구 분	2006				2011				2016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국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국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국			
전체	7,451	31,648	6,047	4,869	154,358	8,484	39,203	7,484	5,811	180,932	10,048	48,026	8,800	6,759	212,592
농업, 임업 및 어업	2	33	34	19	311	1	37	27	27	322	3	41	38	37	397
광업	5	21	10	7	179	6	13	10	8	160	6	14	9	10	157
제조업	2,256	9,813	1,884	830	33,413	2,232	10,873	2,481	1,049	35,875	2,476	12,629	2,800	1,177	40,45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7	97	53	25	675	37	91	46	34	674	42	104	68	29	774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8	146	32	24	577	43	177	44	32	709	56	223	53	38	854
건설업	287	1,368	296	283	8,447	377	1,765	375	338	11,154	484	2,485	524	468	13,815
도매 및 소매업	1,070	4,355	791	816	24,824	1,164	5,326	888	876	26,803	1,397	6,864	1,047	987	31,476
운수업	551	1,579	243	251	8,630	666	1,958	299	279	9,952	765	2,358	351	319	11,099
숙박 및 음식점업	753	3,234	689	540	16,723	841	3,772	757	611	18,400	1,022	4,545	905	708	21,65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5	523	61	77	4,111	67	652	67	77	4,804	86	1,007	62	73	5,667
금융 및 보험업	229	827	178	215	6,202	250	1,016	203	244	7,185	255	1,035	202	256	7,2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9	1,034	102	94	4,192	206	1,092	129	117	4,507	237	1,299	153	143	5,68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5	908	96	78	4,693	200	1,857	117	108	8,107	288	2,356	182	179	9,96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10	661	106	104	5,541	343	1,345	206	176	8,103	404	1,855	285	216	10,94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49	843	246	274	5,422	316	1,016	284	316	6,372	328	1,108	305	308	6,912
교육 서비스업	561	2,620	544	492	12,413	643	3,246	632	564	14,320	707	3,543	631	600	15,52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18	1,407	275	336	7,363	519	2,308	451	508	11,355	848	3,433	631	709	16,1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2	670	97	90	2,902	152	831	114	103	3,346	178	1,014	133	123	3,99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64	1,510	310	313	7,738	421	1,825	353	344	8,786	468	2,115	421	381	9,837



### 3) 서해안권 생산 변화

#### 지역내총생산

-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은 1997년 3,904백억 원, 2007년 5,633백억 원, 2017년 7,301백억 원으로 나타남
  - 1997년 대비 2017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은 87.0% 증가했으며, 동 기간 경기 214.8%, 충남 241.9%, 전북 58.1%, 전국 114.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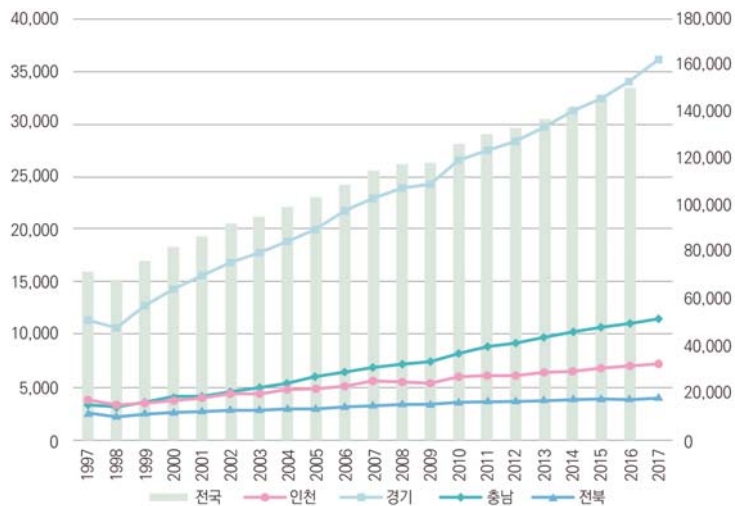
#### 지역내총생산

단위 : 백억 원

구 분	1997	2002	2007	2012	2017
인천	3,904	4,476	5,633	6,214	7,301
경기	11,471	16,902	22,968	28,407	36,107
충남	3,363	4,573	6,942	9,199	11,498
전북	2,612	2,918	3,372	3,782	4,129
전국	72,472	92,784	115,184	133,899	155,395

주 : 2017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 지역내총생산 변화 추이



###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 2017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 27.9%, 운수업 14.1%, 도매 및 소매업 8.5%, 부동산업 및 임대업 7.0%, 건설업 5.5% 등 순으로 나타남
  - 1997년 대비 2017년 인천의 산업별 지역내총생산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51.5%, 운수업 559.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97.5% 등 증가하였으며, 광업 -49.5%, 농림어업 -35.7%, 건설업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997년 대비 2017년 인천의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0%p, 1.8%p 증가한 반면, 제조업, 건설업은 각각 -10.0%p, -5.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단위 : 백억 원

구분	1997					2007					2017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국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국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국
농림어업	36	263	291	245	2,478	30	288	342	298	2,717	23	274	373	307	2,846
광업	15	37	21	12	274	3	31	18	13	253	7	24	15	8	237
제조업	1,301	2,784	933	592	15,210	1,594	7,145	3,124	841	30,102	1,849	13,419	5,813	1,004	44,45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97	302	88	23	958	142	323	186	49	1,723	290	350	333	88	2,258
건설업	384	1,239	414	278	6,488	345	1,349	399	227	6,074	362	2,012	583	231	7,131
도매 및 소매업	256	890	162	166	6,895	342	1,526	199	201	9,318	564	2,505	311	237	12,957
운수업	142	226	85	68	2,697	655	570	164	89	3,961	938	943	227	113	5,166
숙박 및 음식점업	86	283	64	63	2,097	123	578	114	72	2,910	147	640	127	86	3,09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157	28	20	1,506	99	662	60	62	4,166	160	1,383	70	71	5,953
금융 및 보험업	147	409	79	102	3,951	236	958	160	151	6,393	318	1,414	253	205	9,4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0	1,145	178	166	6,111	400	2,027	262	197	8,554	467	2,443	320	219	10,013
사업서비스업	126	612	76	31	3,973	197	1,368	168	81	7,006	284	2,710	263	143	10,16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71	768	263	220	5,005	285	1,256	369	325	7,273	403	1,607	717	439	9,389
교육서비스업	170	601	216	219	4,143	274	1,238	301	261	6,076	302	1,361	371	268	6,54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0	400	87	117	2,544	187	702	126	152	3,703	330	1,349	261	280	6,78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79	456	51	59	1,889	170	805	114	94	3,285	190	949	168	118	3,894

주 : 2017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 II 관련계획 검토 및 현안 도출

### 1. 관련계획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 비전 및 목표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와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 간의 통합을 도모하고,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지향한 국토계획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실현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와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 21세기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동북아 지역과의 통합을 지향하며, 남북협력 기반을 조성

##### 추진전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 권역별 발전방향

- 인천
  - 국제정보 및 교역도시 조성을 위한 트라이포트 기능 확충
  - 특성 있는 관광개발로 아·태지역 중추적 해양관광도시 건설
  - 선진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 유치
  - 지역 간 교통망 및 물류시설의 확충
- 경기
  -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 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보전
  -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을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
  -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여가공간 확충
- 충남
  - 역사·문화 관광자원의 입체적 개발
  -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임해형 신산업지대 조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 및 정비
  - 국토를 연계하는 통합적 교통 및 물류체계의 구축
- 전북
  - 환황해권 생산·물류 중심지로서 기반 확충
  - 경쟁력 있는 신산업의 육성 및 매력 있는 입자환경의 조성
  - 유기적인 도시 및 지역체계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의 추구
  - 통합적 문화·관광권의 구축 및 세계적 지역문화의 창출

## 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비전 및 목표

-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자유무역시대의 세계적 경향을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 실현
- 국민의 꿈을 담은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국토 실현
-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와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
  - 개별 지역이 통합된 광역적 공간 단위에 기초한 新국토골격을 형성하여 지역특화 발전 및 동반성장을 유도
- 품격 있는 매력국토와 세계로 향한 열린 국토
  -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에 물류, 금융, 교류의 거점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 거점 확충

###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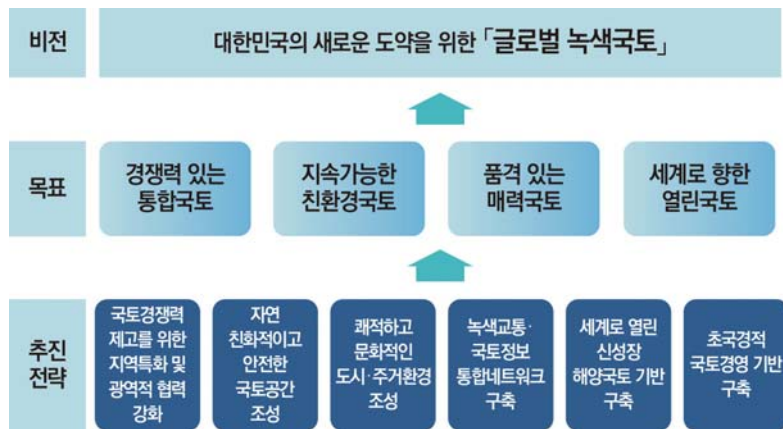
-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

### 국토 형성 방향

- 세계와 교류하는 개방형 국토축 형성
  - 유라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이점을 활용하여 관문국가 역할과 동아시아 주요 경제권의 중추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립
  -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위한 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

- 광역연계형 녹색국토 형성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거점 역할을 하는 광역연계형 국토구조로 개편
  - 행정구역을 탈피하여 광역경제권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의 중심도시를 고속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생산·포괄·지속적 성장 추구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본 틀



자료 : 대한민국 정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권역별 발전방향

- 수도권
  - 동아시아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거점 및 지식산업클러스터 육성
  - 국제 물류인프라 구축 및 교통인프라 기능 확충
  - 다핵공간구조 형성과 낙후지역 지원
  - 환경친화적 도시 정비 및 관광경쟁력 강화
  - 수도권의 광역행정 협조체제 구축 및 권역 간 협력 강화
- 충청권
  - 충청권 내 지역발전거점 도시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강화
  - 충청권 광역연계 인프라 구축 및 접근성 강화

- 新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충청권 녹색국토 창조 및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개발
- 광역·공동개발사업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호남권
  -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
  - 미래 녹색성장 산업, 전통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선진형 교통, 정보, 물류망 확충
  -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 및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 광역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 3)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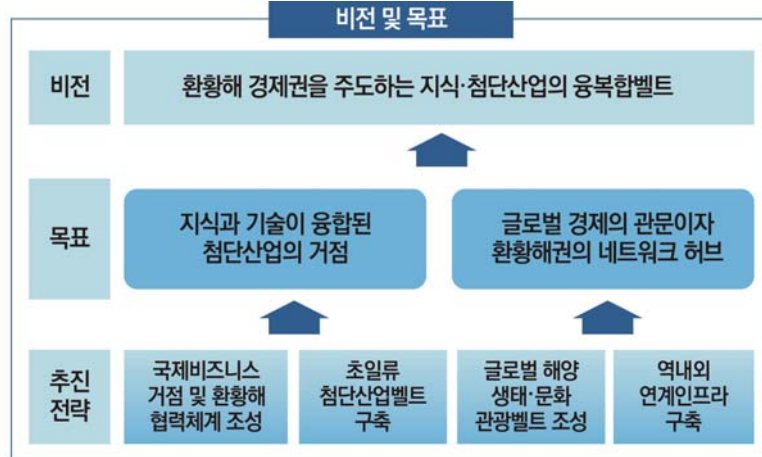
#### 비전 및 목표

- 국제비즈니스 거점화와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을 통해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로 조성
  -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동북아 첨단산업의 거점 육성
  -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

#### 추진전략

- 국제 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 글로벌 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 역내외 인프라 구축

서해안권의 비전과 추진전략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7),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국토 형성 방향

- 수퍼경기만권
  - 국제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이 복합된 동북아 경제거점
- 충남서해안권
  - 국제관광·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
- 새만금권
  -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이 발달된 글로벌 녹색성장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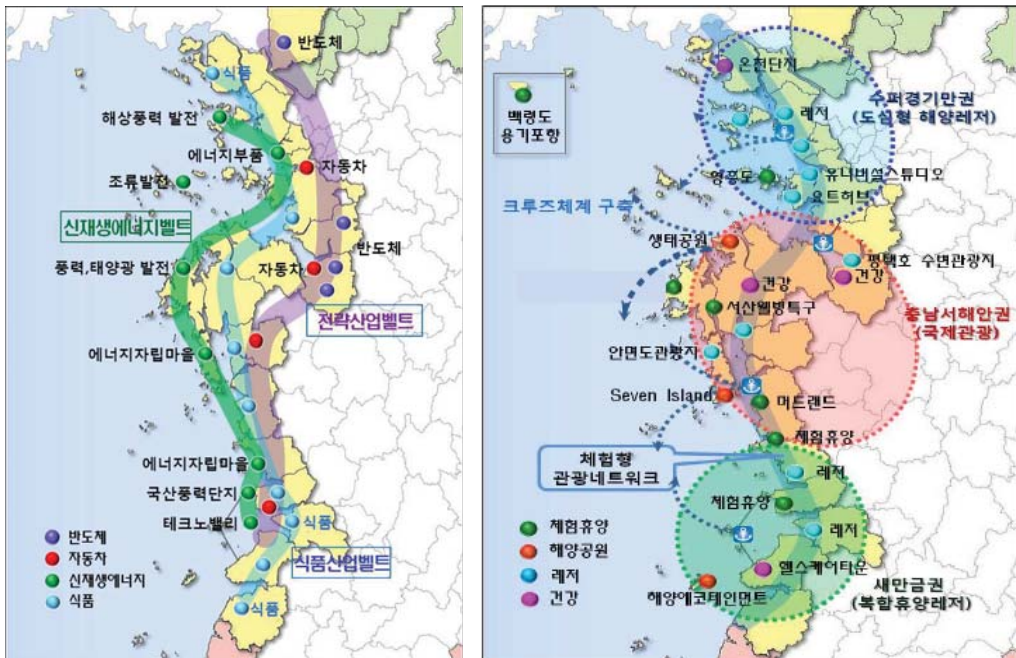
권역별 발전방향

- 국제 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 국제공항·항만 등 높은 대외적 접근성·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제비즈니스 거점을 구축
  - 한국-중국 간, 서해안권 지자체 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환황해권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 간 융복합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전략산업벨트를 구축
  -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벨트 조성 및 해양자원·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벨트 구축
-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 지역별 고유자원을 토대로 한 특색 있는 관광거점 조성과 서해안의 역사·문화를 콘텐츠화한 학습·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 서해안의 세계적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

▶ 첨단산업벨트(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우) 계획도 ▶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7),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 역내외 인프라 구축
  - 권역 내 주요거점 간, 해안과 내륙 간 연계·교류확대를 위해 남북 간·동서 간 연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중국 등 환황해권 지역의 교류·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확충하고 거점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 2. 현안문제 및 발전 방향

### 1) 서해안권 관련 계획상 주요 추진과제 중 16.7% 추진

#### 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 관련 사업 운영

- 변경계획 상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업은 조선산업 클러스터 및 레저용 요트산업 육성,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재해 대응 체계 구축, 서해안 하구역 보전을 위한 하구역센터 건립, 서해안 하구역 보전을 위한 하구역센터 건립사업 추진
  - 반면, 글로벌 전략산업벨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타 사업 역시 성과 도래 기간까지는 추가적인 시간 필요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인천관련 세부사업 역시 공동사업 중 1개 사업, 인천 사업 중 2개 사업만 완료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상 추진정도

구분	공동 사업명	비고
계	8개 사업	
전략 1 :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 체계 조성(4)		
공동-1-1	환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공동-1-2	Sea & Land 페스티벌 개최	
공동-1-3	서해안권 지역 자원 콘텐츠 및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1-4	서해안권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완료

구 분	공동 사업명	비 고
전략 3 : 글로벌 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2)		
공동-3-1	국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기반 구축	
공동-3-3	서해안 하구역 센터 건립	
전략 4 : 연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2)		
공동-4-1	서해안 항만 연계발전을 위한 열차페리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2건	
공동-4-2	서해안 저탄소 녹색 항만 개선 연구	
구 분	인천광역시 사업명	비 고
계 10개 사업		
전략 2 : 신산업 창출 및 특화 산업 기반 구현(5)		
인천-2-1	인천 로봇랜드 조성	연장 예정
인천-2-2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정비	계속
인천-2-3	웅진 덕적 조류발전단지 공동 개발	
인천-2-4	무의도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인천-2-5	명품향토식품 육성	완료
전략 3 : 글로벌 해양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4)		
인천-3-1	용유·무의 문화관광복합레저도시 연육교 건설	
인천-3-2	진두어항 정비	
인천-3-3	서해5도서 관광 인프라 구축	
인천-3-4	웅진 연안도서(덕적·자월군도) 관광 인프라 구축	완료
전략 4 : 연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1)		
인천-4-1	인천 내항 재개발	

### 국제비즈니스의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국제비즈니스 거점 구축
  - BTMICE 활성화 기반 조성
  - 환황해 경제권의 산업과 연계한 복합물류단지 조성
- 환황해권 연계 네트워크 조성
  - 환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활성화
  - 해외시장 공동개척사업 추진

###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 글로벌 전략산업벨트 구축
  - IT와 주력산업간의 융합기반 구축
  - 항공산업 육성기반 구축
  - 조선산업 클러스터 및 레저용 요트산업 육성
  - IT 융합형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허브 구축
  -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
  -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 계속
  - 개별입지의 재정비와 클러스터화 촉진사업
- 신재생 에너지벨트 조성
  - 새만금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거점 개발
  - 경기만권의 그린 에너지산업 입지기반 확충
  - 서해안권의 Plus Energy Belt 조성 : 계속
- 식품산업벨트 구축
  - 농수산물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 새만금 국제농산물 교역기능 강화
  - 수출원에 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 환황해권 국제관광거점 조성 및 네트워킹
  - 인천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조성
  - 시화·화성호권 해양레저комплек스 조성
  - 충남(태안) 국제관광거점 조성
  - 새만금 복합휴양레저도시 조성
  -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기반 구축 : 계속

- 학습·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 해양·농경 선사 역사문화거점 정비
  -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학습공간 조성
- 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
  - 서해안 하구역 보전을 위한 하구역센터 건립 : 완료
  - 자연·생태자원의 보존과 관리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재해 대응 체계 구축

###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 초광역 연계 인프라 확충
  - 서해안권 동·서축 교통체계 완비
  - 서해안권 남·북 간 보완체계 완비
- 환황해권 거점항만 조성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 항만물류 산업의 고도화 : 계속
  - 동북아 물류거점을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 계속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추진정도

전략	프로젝트	개별사업	사업 기간	권역
전략 1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국제비즈니스 거점 구축	BTMICE 활성화 기반 조성	'10-'20	전북
		환황해 경제권의 산업과 연계한 복합물류단지 조성	'10-'20	경기, 충남, 전북
	환황해권 연계 네트워크 조성	환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활성화	'10~	서해안권
		해외시장 공동개척사업 추진	'10~	서해안권
전략 2	글로벌 전략산업벨트 구축	IT와 주력산업간의 융합기반 구축	'10-'20	서해안권
		항공산업 육성기반 구축	'09-'30	경기, 전북
		조선산업 클러스터 및 레저용 요트산업 육성	'09-'16	경기, 전북
		IT 융합형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조성	'08-'21	전북

전략	프로젝트	개별사업	사업 기간	권역
전략 3	신재생 에너지벨트 조성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	'10-'20	경기, 충남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06-'15	인천, 경기
		개별입지의 재정비와 클러스터화 촉진사업	'10-'20	충남
		새만금지역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거점 개발	'12-'25	전북
		경기만권의 그린 에너지산업 입지기반 확충	'10-'20	경기
	식품산업벨트 구축	서해안권의 Plus Energy Belt 조성	'07-'20	인천, 충남
		농수산식품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	'09-'30	서해안권
		새만금 국제농산물 교역기능 강화	'12-'25	전북
		수출원예 클러스터 조성	'11-'25	충남, 전북
		환경해권 국제관광거점 조성 및 네트워킹	인천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조성	'03-'20
시화-화성호권 해양레저콤플렉스 조성	'13~		경기	
충남(태안) 국제관광거점 조성	'10-'20		충남	
새만금권 복합휴양레저도시 조성	'10-'21		전북	
국제관광객 유치를 위한 코루즈 기반 구축	'10~		서해안권	
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	학습·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해양-농경 선사 역사문화거점 정비	'10-'19	전북
	자연환경의 보존과 활용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학습공간 조성	'10-'21	충남, 전북
		서해안 하구역 보전을 위한 하구역센터 건립	'11-'13	인천, 경기
		자연-생태자원의 보전과 관리	'10-'17	충남, 전북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연안 재해 대응 체계 구축	'16-'18	전북
전략 4	초광역 연계 인프라 확충	서해안권 동-서축 교통체계 완비	'10-'20	서해안권
		서해안권 남-북간 보안체계 완비	'10-'20	경기, 전북
	환경해권 거점항만 조성 및 연계 네트워크 구축	항만물류 산업의 고도화	'10~	서해안권
		동북아 물류거점을 위한 항만인프라 구축	'10~	인천

## 2) 현안 문제 도출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국토활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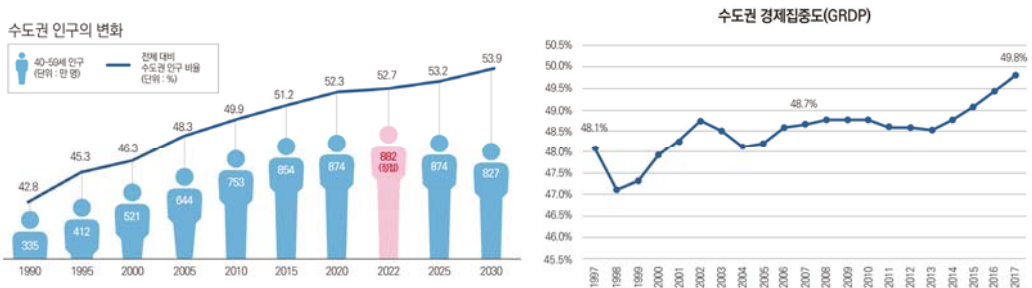
- 인구감소·고령화와 만성적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토지이용전략과 국민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수요맞춤형 국토공간 조성 필요

- 고령인구,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의료·복지·일자리 등 생활기반시설 및 정주환경 불충분
- 과거 성장만능주의의 도시개발로 인해 국토경관의 품격이 저하되고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이 어우러진 고품질의 정주환경 조성이 미흡

### 지역 내 지역발전을 추동할 추동력 기반 취약

- 과도한 수도권 경제의존도와 그 외 지역의 인구유출 및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인한 자립적 발전역량 미미
  - 2017년 기준 전국 GRDP에서 인천광역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4.7%, 경기 23.8%, 충남 7.3%, 전북 2.7%로 경기를 제외한 세 지역의 합계가 경기 GRDP에 미달
  - 2018년 기준 전국 내 인천의 인구 비중은 5.7%, 경기 25.2%, 충남 4.1%, 전북 3.5%로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음
- 지역의 자립적 통합기반 취약
  - 광역화되는 산업·경제활동에 대응해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광역적 공간관리의 미정착
  -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의 경제·사회·생활시설 인프라 불균형 심화

### 수도권 집중도



자료 : 창원대신문(2017.06.12.),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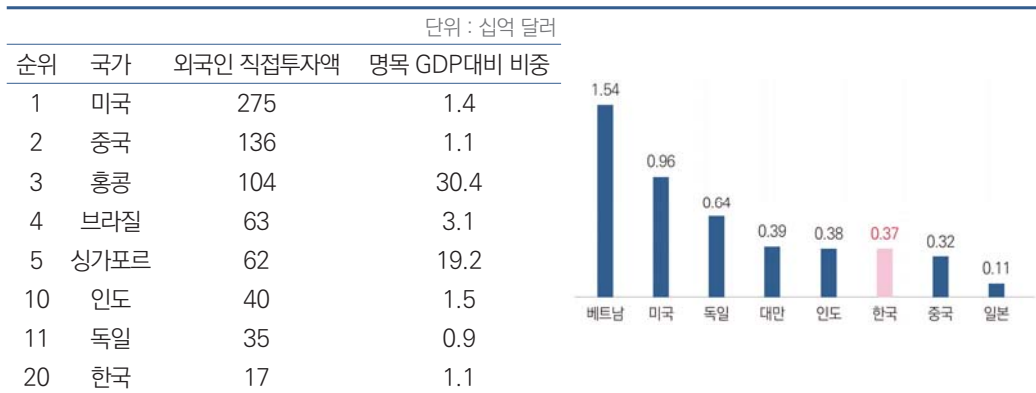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선도형 산업 기반 미흡

-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육성하기 위한 성장 기반 조성 미흡
  - IT 산업, 나노산업, 생명공학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환경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신성장 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책은 미흡

### 국가 간 협력 및 경쟁체제 심화에 대응한 글로벌 국토기반 취약

- 기계적 균등 시각의 지역발전전략으로 동아시아 중추국가 지위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미흡
- 한반도의 우수한 지정학적 위치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다양한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취약한 인프라, 높은 토지비용 등 실제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 미흡

2017년 주요 국가별 FDI 현황(좌), 주요 국가별 FDI 성과지수(우)



자료 : 심혜정·강내영(2018), 「TRADE BRIEF, No.18」

## 3) 발전 방향 설정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고품격 정주기반 형성

- 인구성장기 시대의 난개발 지역발전방식을 지양하고 주거·생활·교통기능을 포괄하는 지역 발전전략 수립



- 컴팩트시티, 스마트시티 등 머지않아 도래할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발전 지향
- 대규모 개발 및 공급주도형 국토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실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국토이용 및 관리 방식 정립 필요
  - 개발수요 감소에 따라 과잉 주택공급 및 개발을 축소하고, 현실적인 계획인구 지표를 설정
  - 출산·고령자 친화적인 지역사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임산부 및 고령자 등 사회적으로 돌봄이 요구되는 계층에게 고품격 공공시설 제공

###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및 내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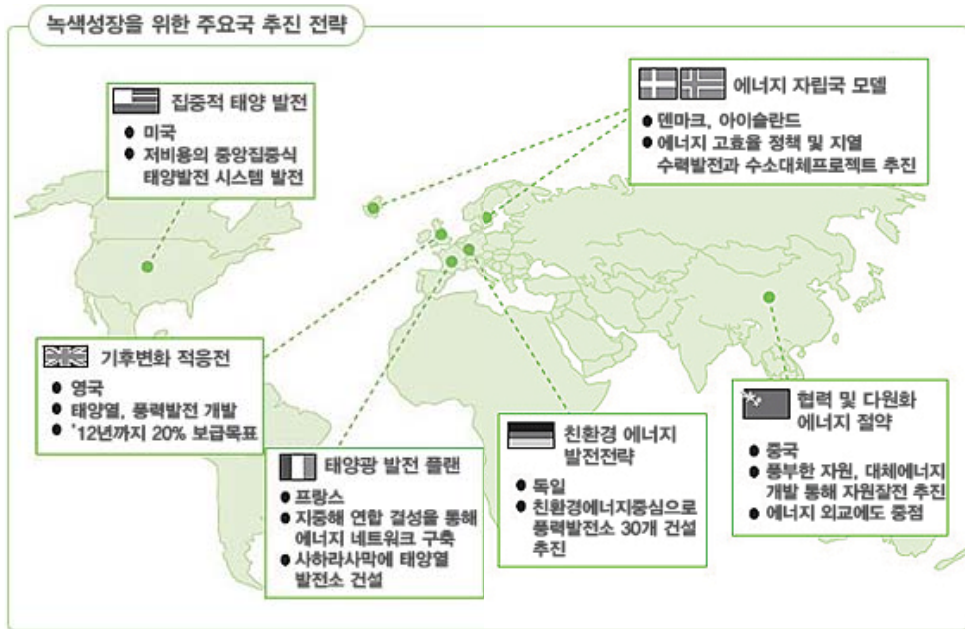
- 서해안권의 초광역 융복합형 산업벨트 조성으로 인근 지역간 연계·협력을 극대화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 초광역 융복합형 산업벨트의 신산업 성장 등 입주한 기업활동을 지원을 위해서 고급 인력과 연구개발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
-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자발적 성장을 견인할 추동력 확보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유지보수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통해 도시형 첨단산업의 특화발전을 도모

### 녹색산업 육성 및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선도형(Trend-Setter Model) 산업기반 형성

-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녹색산업의 육성의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신규시장 창출
  - 신성장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용지·지원시설 조성과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인재 교육 및 유치방안 필요
  - 장기적인 시각을 견지한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연구·투자로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육성하고 기초원천 확보

- 서해안 풍부한 해양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친환경·문화·관광산업의 융복합화 선도하고 풍력, 조력, 태양광 등 풍부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거점지역 조성

###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국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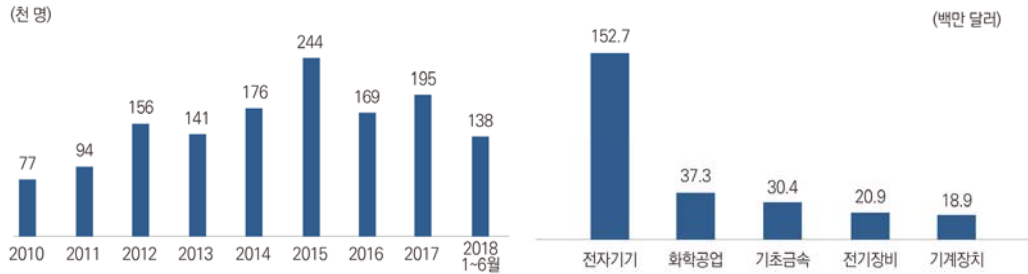


자료 : 관광상주 홈페이지(<https://sangju.go.kr>)

### 글로벌 투자규모 증대와 세계 무역과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에 대응할 방안 마련

-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은 지역의 생산 및 수출 증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해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에 긍정적 영향 미치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필요
- 동북아 국제비즈니스·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산업의 고도화 및 집적기능 활성화
  -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對중국 항만물류의 핵심지역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시대를 이끄는 환황해 물류의 전진기지 조성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내 취업유발인원(좌) 및 외국인 투자의 국내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우)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8),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및 수출 영향」

지역상권의 자원화를 통한 골목상권 개발 및 지역 주민소득 창출

- 인천광역시의 성장을 증대시키는 주요 산업 중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업의 인천광역시 지역성장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제조업, 특히 첨단 산업 중심의 지역성장 유도정책 외에 지역주민의 대다수의 삶터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지역의 양극화 해소 및 골목상권의 보전을 통한 지역성장책 운영 필요

# III 주력산업 선정 실증 분석

## 1. 국가 및 서해안권 성장을 고려한 주력산업선정

### 1) 인천광역시 산업 특화도 도출

#### 전국/서해안권 대비 산업의 특화 정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대표 산업 다양성 부재

- 전국대비 입지상법을 활용하여 접근 인천광역시의 산업별 특화도를 파악
  - 전국의 전산업 총고용자 대비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자 비중과 인천광역시의 전산업 총 고용자 대비 특정산업의 고용자 비중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산업은 특화되었다고 평가함

$$LQ_a = \frac{(E_a^r / E^r)}{(E_a^n / E^n)}$$

$E_a^r$  : 인천광역시 r 산업 a의 고용자 수

$E^r$  : 인천광역시 r의 총고용자 수

$E_a^n$  : 전국 산업 a의 고용자 수

$E^n$  : 전국 총고용자 수

- 2006년~2016년 전국대비 인천광역시의 산업별 입지상법을 이용하여 특화산업을 선정 하면 인천광역시는 2006년 제조업, 전력, 가스 및 수도, 운수 및 보관에서 상대적으로 산업이 특화됨
  - 이 중 제조업은 2006년 대비 2016년 특화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교육 및 보건의 산업 특화도는 상대적으로 증가됨
  - 이는 2016년 인천의 산업 특화 정도는 광산품, 전력, 가스 및 수도, 건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보험, 교육 및 보건의 산업이 특화되어 전국 대비 해당 업종의 종사자가 증가한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함

- 또한, 2006년 서해안권 타지역의 특화산업은 농림수산물, 광산물, 전력, 가스 및 수도, 음식점 및 숙박,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로 나타남
- 반면, 충남 및 전북의 1차 산업의 특화도는 점차 증대되는 반면, 2차 산업의 특화 정도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타 지역의 3차 산업 특화도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1차 산업을 제외한 2·3차 산업 종사자수가 감소함
- 이는 서해안권 지역의 전반적인 중점 산업이 농림어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미비되는 특성을 의미함

### 2006년 및 2011년 대비 2016년 인천광역시 2·3차 산업 중 일부(제조업,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저성장 대비 1차 산업(광산물) 성장

- 2006년 대비 2016년 인천광역시 산업 중 1차(광산물), 2차(전력가스 및 수도, 건설), 3차(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등)에서 산업 쇠퇴가 발생함
  - 반면, 2011년 대비 인천광역시 사업은 2차(제조업), 3차(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에서 산업 쇠퇴가 이루어짐
  - 특히, 제조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에서의 산업 쇠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따라서, 전국 대비 상대적인 종사자 증감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의 여건 중 우세하게 나타난 산업은 2006년 대비 광산물, 전력가스 및 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업 등으로 나타남
  - 또한, 2011년 대비 2016년 인천광역시의 특화산업은 농림수산물업에서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융 및 보험의 활성화가 이루어짐
  - 반면,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의 성장은 감소됨
  - 특히, 타 시도에서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 3차 산업 특화 중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의 특화 감소는 인천광역시 공공 서비스 제공에 약점으로 작용함

연도별 서해안권 입지계수 추이

구 분	2006				2011				2016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농림수산물	0.15	0.51	2.79	1.95	0.09	0.54	2.06	2.61	0.14	0.46	2.32	2.89
광산업	0.60	0.56	1.45	1.29	0.77	0.39	1.55	1.51	0.83	0.39	1.32	2.01
제조업	1.40	1.43	1.44	0.79	1.33	1.40	1.67	0.91	1.30	1.38	1.67	0.92
전력, 가스 및 수도	1.24	0.95	1.73	1.25	1.22	0.90	1.57	1.47	1.27	0.89	1.80	1.30
건설	0.70	0.79	0.89	1.06	0.72	0.73	0.81	0.94	0.74	0.80	0.92	1.07
도소매	0.89	0.86	0.81	1.04	0.93	0.92	0.80	1.02	0.94	0.97	0.80	0.99
음식점 및 숙박	0.93	0.94	1.05	1.02	0.97	0.95	1.00	1.03	1.00	0.93	1.01	1.03
운수 및 보관	1.32	0.89	0.72	0.92	1.43	0.91	0.73	0.87	1.46	0.94	0.76	0.90
통신 및 방송	0.47	0.79	0.46	0.56	0.44	0.90	0.34	0.45	0.51	0.95	0.38	0.51
금융 및 보험	0.77	0.65	0.73	1.10	0.74	0.65	0.68	1.06	0.74	0.63	0.67	1.11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85	0.85	0.55	0.65	0.93	0.89	0.64	0.72	0.82	0.84	0.64	0.68
공공행정 및 국방	0.95	0.76	1.16	1.60	1.06	0.74	1.08	1.55	1.00	0.71	1.07	1.40
교육 및 보건	0.92	0.99	1.06	1.33	0.97	1.00	1.02	1.30	1.04	0.98	0.96	1.30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97	1.00	0.98	1.20	1.01	1.01	0.93	1.15	0.99	1.00	0.97	1.15

## 2) 국가 및 서해안권 발전을 고려한 인천광역시 산업 특화

### 전국대비 성장요인의 미비로 인한 인천광역시 주도 산업의 부재

- 변이할당법을 이용하여 행정구역 전체의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의 산업별 성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고용변화,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 경쟁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분석이 필요
  -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고용 성장효과를 전국의 경제성장요인, 산업구조요인, 경쟁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 국가의 경제성장요인이란, 전국의 경제성장이 인천광역시 지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이며, 산업구조요인은 산업의 전국 성장 특징이 인천광역시 지역 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임
  - 또한, 경쟁요인이란 인천광역시의 생산 환경의 특징으로 인한 인천광역시의 성장효과를 의미
- 인천광역시의 산업 성장을 시점별로 국가성장과 비교할 경우에는 국가 대비보다 서해안권 대비로 국가성장효과를 산출할 경우에 인천광역시의 성장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성은 인천광역시의 모든 산업에서 서해안권 발전 정도와 비교할 경우에 보다 성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산업 중 1차 산업에서는 농림수산물, 2차 산업에서는 전력가스 및 수도사업, 3차 산업에서는 통신 및 방송 산업이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제조업, 도소매, 교육 및 보건, 음식점 및 숙박업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의 산업은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성은 서해안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서해안권의 발전에 의한 인천광역시의 성장은 국가에 의한 성장보다 크게 나타남
- 2006년~2016년 인천광역시의 산업 성장은 최대 86%, 최소 11%로 나타남
  - 가장 크게 산업이 성장한 산업은 통신 및 방송업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및 보건, 건설업이 각각 77%, 6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산업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제조업은 1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핵심 산업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1차 산업은 농림수산물 13% 증가, 광산물 18%가 증가하여 인천광역시에서의 1차 산업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차 산업의 지원 및 주민 편의와 관련된 3차 산업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종 금융 및 보험업, 사회 및 기타 서비스의 성장 정도가 타 3차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3차 산업의 정체 현상을 나타내는 원인으로 나타남
- 국가 전체 및 서해안권의 산업별 성장을 고려했을 경우, 인천광역시의 고용변화는 14개 전 산업에서 (+)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교육 및 보건,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의 고용변화는 국가의 산업성장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고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인천광역시 산업 성장은 국가의존형인 것으로 나타남
- 국가와의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경쟁요인 성장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 및 서해안권과 대비하여 단순하게 산업의 특화도를 제시한 입지계수법과는 다소 일치하지만, 국가의 산업구조변화를 고려했을 경우에는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난 산업이라도 성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건설업,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교육 및 보건업의 산업구조변화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경쟁요인을 토대로 한 인천광역시의 경쟁변화는 동일분야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공공행정 및 국방의 경쟁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시의 국가대비 순변화는 건설업,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 및 보건을 제외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국가의 성장 및 경쟁변화를 고려한 총변화는 전체 산업에서 경쟁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성장을 고려한 인천광역시 산업 특화 결과 : 2006~2011

구분	산업별성장율		국가 성장 효과		산업 구조 변화		경쟁 변화		산업별성장율		국가 성장 효과		산업 구조 변화		경쟁 변화		총변화	
	인천	전국	국가	전국	산업	국가	산업	국가	인천	전국	국가	전국	산업	국가	인천	전국	국가	전국
농림수산물	-0.43	0.03	40	-32	-107	-139	-99	-0.43	0.05	51	-38	-111	-150	-99				
광산업	0.12	-0.11	90	-147	118	-30	60	0.12	-0.14	114	-186	132	-54	60				
제조업	-0.01	0.07	38,835	-22,213	-18,953	-41,167	-2,332	-0.01	0.13	49,462	-21,187	-30,607	-51,794	-2,332				
전력, 가스 및 수도	0.06	0.10	1,294	-509	-371	-880	414	0.06	0.11	1,648	-812	-421	-1,234	414				
건설	0.32	0.32	4,933	4,251	-97	4,154	9,087	0.32	0.28	6,283	1,705	1,099	2,804	9,087				
도소매	0.09	0.08	18,414	-9,887	880	-9,007	9,407	0.09	0.17	23,453	-4,861	-9,185	-14,046	9,407				
음식점 및 숙박	0.12	0.10	12,962	-5,410	1,254	-4,156	8,806	0.12	0.15	16,509	-5,470	-2,234	-7,703	8,806				
운수 및 보관	0.21	0.15	9,485	-1,048	3,101	2,053	11,538	0.21	0.22	12,080	103	-646	-542	11,538				
통신 및 방송	0.33	0.47	3,453	5,901	-2,699	3,202	6,655	0.33	0.62	4,398	7,982	-5,725	2,257	6,655				
금융 및 보험	0.09	0.16	3,944	-315	-1,523	-1,838	2,106	0.09	0.18	5,023	-826	-2,091	-2,917	2,106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38	0.30	6,866	4,921	3,199	8,120	14,986	0.38	0.45	8,745	9,008	-2,767	6,241	14,986				
공공행정 및 국방	0.27	0.18	4,280	78	2,341	2,419	6,699	0.27	0.20	5,451	-508	1,756	1,248	6,699				
교육 및 보건	0.32	0.30	15,144	11,094	2,023	13,117	28,261	0.32	0.35	19,288	11,838	-2,865	8,973	28,261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16	0.14	8,540	-1,589	742	-846	7,694	0.16	0.19	10,877	-1,524	-1,659	-3,183	7,694				

국가성장을 고려한 인천광역시 산업 특화 결과 : 2011~2016

구 분	산업별성장율		국가 성장 효과	산업 구조 변화	경쟁 변화	순변화	총변화	산업별성장율		국가 성장 효과	산업 구조 변화	경쟁 변화	순변화	총변화
	인천	전국						인천	서해안권					
농림수산물	0.97	0.24	23	8	98	106	129	0.97	0.28	28	9	92	101	129
광산품	0.06	-0.01	101	-110	42	-67	34	0.06	0.04	120	-98	12	-86	34
제조업	0.11	0.13	39,064	-10,586	-4,105	-14,691	24,373	0.11	0.15	46,313	-13,481	-8,459	-21,940	24,373
전력, 가스 및 수도	0.23	0.18	1,387	18	438	456	1,843	0.23	0.22	1,645	90	108	198	1,843
건설	0.28	0.24	6,604	2,397	1,628	4,025	10,629	0.28	0.39	7,830	6,767	-3,968	2,799	10,629
도소매	0.20	0.17	20,362	-72	3,069	2,998	23,360	0.20	0.25	24,141	4,642	-5,423	-781	23,360
음식점 및 숙박	0.21	0.18	14,716	171	3,182	3,353	18,069	0.21	0.20	17,447	-614	1,237	622	18,069
운수 및 보관	0.15	0.12	11,659	-3,976	2,141	-1,834	9,825	0.15	0.18	13,823	-1,556	-2,442	-3,998	9,825
통신 및 방송	0.40	0.21	4,674	957	5,060	6,017	10,691	0.40	0.35	5,542	3,688	1,462	5,149	10,691
금융 및 보험	0.02	0.01	4,377	-4,130	240	-3,890	487	0.02	0.02	5,190	-4,689	-13	-4,703	487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17	0.32	9,601	7,865	-8,245	-380	9,221	0.17	0.27	11,383	3,468	-5,630	-2,162	9,221
공공행정 및 국방	0.04	0.08	5,522	-2,847	-1,466	-4,313	1,209	0.04	0.06	6,547	-4,631	-707	-5,338	1,209
교육 및 보건	0.34	0.23	20,338	6,736	12,174	18,909	39,247	0.34	0.25	24,112	5,104	10,032	15,135	39,247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13	0.14	10,027	-2,002	-752	-2,754	7,273	0.13	0.17	11,888	-2,370	-2,245	-4,615	7,273

국가성장을 고려한 인천광역시 산업 특화 결과 : 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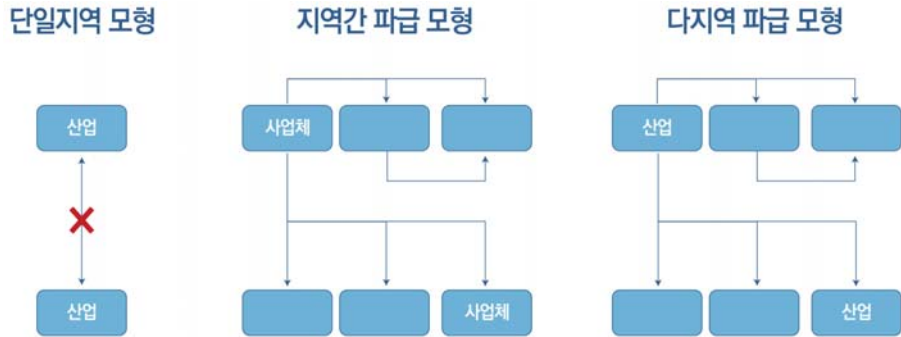
구 분	산업별성장율		국가 성장 효과	산업 구조 변화	경쟁 변화	순변화	총변화	산업별성장율		국가 성장 효과	산업 구조 변화	경쟁 변화	순변화	총변화
	인천	전국						인천	서해안권					
농림수산물	0.13	0.28	88	-23	-34	-58	30	0.13	0.35	110	-29	-50	-80	30
광산업	0.18	-0.12	196	-260	158	-102	94	0.18	-0.11	246	-300	149	-152	94
제조업	0.10	0.21	85,102	-37,585	-25,476	-63,061	22,041	0.10	0.29	106,520	-40,911	-43,568	-84,479	22,041
전력, 가스 및 수도	0.30	0.30	2,835	-579	1	-578	2,257	0.30	0.35	3,548	-886	-405	-1,291	2,257
건설	0.69	0.64	10,810	7,398	1,508	8,906	19,716	0.69	0.77	13,531	8,629	-2,444	6,185	19,716
도소매	0.31	0.27	40,353	-11,689	4,103	-7,586	32,767	0.31	0.46	50,508	-862	-16,880	-17,741	32,767
음식점 및 숙박	0.36	0.30	28,405	-6,188	4,658	-1,530	26,875	0.36	0.38	35,554	-7,235	-1,444	-8,679	26,875
운수 및 보관	0.39	0.29	20,785	-5,022	5,600	578	21,363	0.39	0.45	26,016	-1,446	-3,206	-4,653	21,363
통신 및 방송	0.86	0.78	7,567	7,987	1,792	9,779	17,346	0.86	1.18	9,471	14,116	-6,242	7,875	17,346
금융 및 보험	0.11	0.17	8,643	-4,752	-1,298	-6,050	2,593	0.11	0.21	10,818	-6,079	-2,146	-8,225	2,59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61	0.71	15,046	13,188	-4,028	9,161	24,207	0.61	0.84	18,833	14,519	-9,145	5,374	24,207
공공행정 및 국방	0.32	0.27	9,379	-2,544	1,073	-1,471	7,908	0.32	0.27	11,739	-4,987	1,156	-3,831	7,908
교육 및 보건	0.77	0.60	33,186	19,654	14,668	34,322	67,508	0.77	0.69	41,538	19,523	6,447	25,970	67,508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30	0.30	18,715	-3,843	94	-3,748	14,967	0.30	0.39	23,425	-4,278	-4,180	-8,458	14,967

## 2. 인천광역시 산업 특성을 고려한 특화 산업 도출

### 1) 인천광역시 산업연관 정도 고려

- 산업연관분석은 지역별 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산업과 하위 산업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업의 효과를 파악
  -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계까지 분석이 가능하여 구체적인 경제구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 존재함
  - 산업연관분석은 관심대상 변수를 외생적으로 취급하여 그 변수가 내생적인 경제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이를 통해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출물이 미치는 영향과 그 산출물이 타 산업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음
  - 산업연관분석은 대상 지역을 구분하는 정도에 따라 단일지역부터 지역 간 및 다지역모형으로 상세화됨
- 서해안권 개발계획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인천광역시 및 서해안권 기초지자체로 확장하여 고려
  - 지역의 발전효과는 단일 지역 모형(single-regional input output table, IO), 지역 간 투입산출표(inter-regional input output table, IRIO), 다지역 투입산출표(multi-regional input output table, MRIO)을 이용한 경우로 구분
  - 지역 간 파급 모형과 다지역의 파급 모형을 이용한 경우는 단일 지역 모형을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지역 내 파급효과와 지역 간 파급효과로 구분
  - 이는 단일 지역 모형을 이용한 한계로 나타나는 지역 간 교역을 고려함으로써 서해안권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으로 파급되는 효과의 측정이 가능
  - 또한 사업체 및 산업의 고려에 따라서 지역 간 파급 모형과 다지역 파급 모형으로 구분
  - 이중 다지역 파급 모형이 가장 상세하게 서해안권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설립 효과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범위를 서해안권으로 확장하여 고려

Ⅱ 산업별/권역별 산업연계 차이



## 2) 인천광역시 산업연관 정도 고려한 분석 결과

### 생산력이 낮은 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산업간 연계 약화 및 경쟁력 부재

- 인천광역시의 지역 간 산업연관분석은 한국은행의 16개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함
  - 인천광역시의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전체 산업연관표에 양비례법을 적용하여 인천광역시의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추출할 수 있으나,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활용도를 제고함
  - 인천광역시의 20개 산업은 14개 산업 분류로 재편성하여 인천광역시 산업의 연계성을 파악하였으며, 기존 입지계수법과 변이 할당법에 의한 산업 특화 및 경쟁력과의 일관성을 유지함
- 인천광역시의 산업연계를 통해 주요 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는 전체산업과 하위 산업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지역경제현상 및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
  - 기존의 방법과 달리 산업연관분석은 거시적 분석이 미치지 못하는 산업과 산업 간의 연관관계의 제시가 가능하여 인천광역시의 구체적인 경제구조 분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기존 방법과 차별됨

- 특히, 향후 총수요가 아닌 특정부문의 산업 발전으로 인한 증가가 해당 산출물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을 받은 산출물이 타 산업으로 유발시키는 효과를 제시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천광역시의 산업구조 파악이 필요
- 지역별 산업연관효과는 생산승수, 소득승수, 고용승수로 구분되어 제시가 가능하며, 생산승수( $O_j$ )는 산업  $j$ 제품에 대한 1단위 최종 수요의 변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효과를 나타냄
  - 산업의 생산승수는 산업 간의 연관 정도를 나타내며, 산업  $j$ 의 생산 승수가 높을 때는 산업  $j$ 와 타 산업 간의 연관관계가 높음을 나타냄
  - 인천광역시 산업의 생산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제조업, 음식점 및 숙박으로 나타남
  - 반면, 전력, 가스 및 수도는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생산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주소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산업다양성의 부재

- 소득승수는 각 산업 제품에 대한 외부 수요의 변화가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 수요의 변화가 가계 부문의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임
  - 산업  $j$ 제품에 대한 1단위 수요의 변화가 가계 부문의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 반면, 생산효과가 낮은 공공행정 및 국방의 소득이 인천광역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의 주원천인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산업으로 인한 소득이 유발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승수는 산업의 생산량과 산업의 고용자와의 관계가 측정 가능하다면 각 산업 제품에 대한 외부 수요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
  - 고용 투입산출계수는 산업  $j$ 제품 1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고용의 가치를 의미하며, 고용계수는 산업  $j$ 제품 1단위 생산에 고용되는 고용자의 수를 나타내며, 산업  $j$ 에 고용된 종사자 수는 산업  $j$ 의 평균 노동임금과 투입산출표에서 가계 부문의 노동 소득을 이용하여 파악함
  - 인천광역시 고용승수는 1차 산업 중 농림수산물, 3차 산업 중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사회 및 기타 서비스, 교육 및 보건에 의해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농림수산물,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에서의 인천광역시의 산업별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1차 산업 중 광산물, 3차 산업 중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회 서비스의 고용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서비스산업 중심의 인천광역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산업 연계를 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은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 간 연계 효과는 전방효과 및 후방효과로 구분하여 분석되며, 전방계수는 산업의 전방 연계효과(forward linkage effect)의 상대적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임
  - 산업  $i$ 의 제품이 다른 산업들의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하는 효과를 의미하며, 인천광역시 산업발전으로 인해 유발된 소득으로 인해 발전되는 산업효과를 나타냄
  - 전방효과가 1보다 큰 경우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을 의미하는 반면, 1보다 작은 산업은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임
  - 인천광역시 전방계수가 큰 산업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으로 다른 산업 제품들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씩 증가하였을 때 그 산업의 생산이 1단위 이상으로 증가하는 산업인 것으로 나타남
- 후방계수는 산업의 후방연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의 상대적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임
  - 이는 산업  $j$ 의 성장이 산업  $i$ 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산업들의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로써, 인천광역시 산업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에 주로 영향을 주는 타산업의 영향도를 측정
  - 후방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그 산업재화에 대한 최종 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나타내며, 이에 해당하는 산업은 농림수산물,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및 숙박업,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인 것으로 분석됨

▣ 인천광역시 단일지역모형 승수효과 결과 ▣

구 분	생산효과	소득효과	고용효과	전방효과	후방효과
농림수산물	1.831	0.192	0.072	0.703	1.027
광산품	1.778	0.292	0.010	0.569	0.997
제조업	2.084	0.268	0.012	3.250	1.169
전력, 가스 및 수도	1.274	0.083	0.002	0.861	0.715
건설	2.007	0.415	0.018	0.631	1.126
도소매	1.692	0.359	0.034	0.959	0.949
음식점 및 숙박	2.088	0.350	0.037	0.802	1.172
운수 및 보관	1.792	0.319	0.010	0.895	1.005
통신 및 방송	1.806	0.248	0.009	0.827	1.013
금융 및 보험	1.632	0.350	0.010	1.134	0.916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492	0.286	0.011	1.232	0.837
공공행정 및 국방	1.507	0.634	0.017	0.568	0.845
교육 및 보건	1.574	0.632	0.020	0.615	0.883
사회 및 기타 서비스	2.396	0.349	0.028	0.955	1.344

### 3. 인천광역시 주력산업부문 선정

#### 1) 현재 기준 주력산업부문

**인천광역시 주요 사업은 제조업, 음식점 및 숙박, 사회 및 기타서비스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산업 특성은 1차 산업의 높은 발전가능성, 2차 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 3차 산업 중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의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구성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건설업, 제조업으로 인한 높은 특화도와 고용순변화 창출 가능성, 산업 간 연계 효과의 창출 가능성은 인천광역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1차 산업은 전국적인 우위는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에서의 내적 성장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산업 간 연계는 교육 및 보건, 건설업, 통신 및 방송, 제조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건설업, 제조업은 인천광역시 산업 연계에 있어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건설업, 공공행정 및 국방, 농림수산품은 전국 대비 우세하나 타지자체로의 연계를 고려할 경우에는 열세인 것으로 나타나 보다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동력 확보가 필요함

▣ 현재 기준 인천광역시 산업 경쟁력 종합 ▣

구 분	입지 계수법	변이할당법				투입산출법		순위
		산업구조효과		경쟁효과		전방 효과	후방 효과	
		전국	서해안권	전국	서해안권			
농림수산물						○	12	
광산품				○	○		8	
제조업	○					○	○	4
전력, 가스 및 수도	○			○				8
건설		○	○	○			○	2
도소매				○				12
음식점 및 숙박				○			○	8
운수 및 보관	○			○			○	4
통신 및 방송		○	○	○			○	2
금융 및 보험						○		12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	○			○		4
공공행정 및 국방	○			○	○			4
교육 및 보건	○	○	○	○	○			1
사회 및 기타 서비스				○			○	8

## 2) 미래 대비 주력산업부문

### 특화도 우세 산업 기준

- 인천광역시 전체 산업의 특화도를 20% 단위로 구분하여 1에 근접할수록 우선지원단계, 기반구축단계, 예비단계로 구분하여 적용
- 특화도 1에 가장 근접한 산업은 광산품,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사회 및 기타 서비스로 분류되어 우선지원을 위한 산업으로 분류
  - 더불어, 건설, 금융 및 보험은 기반구축단계, 통신 및 방송은 예비단계로 구분

#### 특화도 기준 향후 인천광역시 우선산업 도출

구 분	단 계	우선지원단계(1)	기반구축단계(2)	예비단계(3)
농림수산물	4			
광산품	1	○		
제조업				
전력, 가스 및 수도				
건설	2		○	
도소매	1	○		
음식점 및 숙박	1	○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3			○
금융 및 보험	2		○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	○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	○		

### 타 산업의 발전 유도 산업 기준

- 인천광역시 전체 산업의 발전 정도를 타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산업으로 구분
  - 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도를 20% 단위로 구분하여 1에 근접할수록 우선지원단계, 기반구축단계, 예비단계로 구분하여 적용

- 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1에 가장 근접한 산업은 전력가스 및 수도,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사회 및 기타 서비스로 분류되어 우선지원을 위한 산업으로 분류
  - 더불어, 농림수산물, 건설업, 교육 및 보건은 기반구축단계, 통신 및 방송은 예비단계로 구분

Ⅱ 타 산업 발전 유도 산업 기준 향후 인천광역시 우선산업 도출 Ⅱ

구 분	단 계	우선지원단계(1)	기반구축단계(2)	예비단계(3)
농림수산물	2		○	
광산품	3			○
제조업				
전력, 가스 및 수도	1	○		
건설	2		○	
도소매	1	○		
음식점 및 숙박	1	○		
운수 및 보관	1	○		
통신 및 방송	1	○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3			○
교육 및 보건	2		○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	○		

중간재 생산 산업의 활성화 기준

- 인천광역시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중간재 생산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산업으로 구분
  - 중간재 생산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도를 20% 단위로 구분하여 1에 근접할수록 우선지원 단계, 기반구축단계, 예비단계로 구분하여 적용
- 타 산업을 발전시키는 1에 가장 근접한 산업은 광산품, 도소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업으로 분류되어 우선지원을 위한 산업으로 분류
  - 더불어, 전력가스 및 수도업은 기반구축단계로 구분

Ⅱ 중간재 생산 산업 활성화 기준 향후 인천광역시 우선산업 도출 Ⅱ

구 분	단 계	우선지원단계(1)	기반구축단계(2)	예비단계(3)
농림수산물				
광산업	1	○		
제조업				
전력, 가스 및 수도	2		○	
건설				
도소매	1	○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1	○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	○		
공공행정 및 국방	1	○		
교육 및 보건	1	○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주 : 분석결과 예비단계 해당 산업 없음

경쟁력 증대 산업 기준

- 인천광역시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전국 산업 경쟁력과 비교하여 (+)에 근접할수록 우선 지원단계, 기반구축단계, 예비단계로 구분하여 적용
- 경쟁력이 양(+)에 가장 근접한 산업은 건설, 운수 및 보관, 금융 및 보험, 사회 및 기타 서비스로 분류되어 우선지원을 위한 산업으로 분류
  - 더불어, 경쟁력이 (-)이지만 (+)으로 전환되는 단계인 기반구축단계에는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도소매업으로 분류

Ⅰ 경쟁력 증대 산업 기준 향후 인천광역시 우선산업 도출 Ⅰ

구 분	단 계	우선지원단계(1)	기반구축단계(2)	예비단계(3)
농림수산물				
광산업				
제조업				
전력, 가스 및 수도				
건설	1	○		
도소매	3			○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1	○		
통신 및 방송	2		○	
금융 및 보험	1	○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2		○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	○		

인천광역시의 미래 대비 주력산업

- 현재 산업의 성과 외에 미래 산업의 특성화를 위해서 고려된 산업별 특화도, 타산업 발전 유도 정도, 중간재 생산 지원 정도, 경쟁력을 고려할 경우 인천광역시의 미래 대비 주력 산업은 도소매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외 건설업, 음식점 및 숙박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구분됨
  - 따라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산업으로는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이며, 그 다음으로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한 산업은 건설업으로 분석됨

## IV 서해안권 다지역 산업연계 분석

### 1. 서해안권 산업구조를 반영한 인천 중심 서해안권 다지역산업연관분석

#### 다지역산업연관 분석 개요

- 서해안권 개발계획 반영으로 인한 지역경제 측면에서의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다지역모형(MRIO)을 구축 및 분석
  - 서해안권 개발계획의 지역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공간적인 기준은 인천, 경기, 충남, 전북으로 구분하여 제시
  - 다지역모형을 사용함으로써 서해안권 개발계획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파급효과를 특정 지역의 지역발전효과 외에 지역 내-지역 간으로 지역발전효과로 구분
  - 서해안권 개발계획으로 인한 지역별 효과는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는 지역 내 효과와 주변 지역과의 교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효과로 분류
  - 지역 간 효과를 발생시키는 지역과의 교류는 지역 간 산업의 무역으로 인한 산업 간 교역에 의해서 주로 발생
  - 이는 단순히 지역의 서해안권 개발계획의 평가로 지역의 발전 가능성 및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
- 서해안권 개발계획으로 인한 유발되는 사업 타당성 외에 지역경제에서의 정책적인 타당성 확보 노력 반영
  - 서해안권 개발계획의 정책적 타당성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지역별 산업연관표의 생산, 피용자보수, 부가가치를 활용
  - 이를 활용함으로써 서해안권 개발계획의 정책적인 지원 타당성을 도출하는 것을 다지역 투입산출표로 제시

- 서해안권 개발계획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유발 효과를 시점별로 구분하여 장단기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분석
  - 서해안권 MRIO의 적용은 28개 표준산업분류를 14개로 재구분하여 서해안권 개발계획을 위한 투자비와 정합성을 유지
  - 더불어, 서해안권 개발계획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구분하여 파급효과를 산출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서해안권 MRIO 분석 개요
  - 서해안권 모형은 지역의 사업체를 기초로 작성된 반면 다지역모형은 서해안권 다지역 간 산업의 관계를 이용하여 작성
  - $n$ 개 산업에 대한 지역의 서해안권 산업연관표는 지역별/산업별로 구분
  - 지역으로 유입되는 산업  $i$ 제품의 총량 중 해당 지역  $A$ 로 유입되는 비율을 지역간 유입 계수라고 하며 이는 산업  $i$ 제품의 지역간 교역계수( $\phi$ )를 의미
  - 지역 간 유입계수를 고려한 지역의 중간재수요와 최종재수요는 지역별로 배분되며, 이를 통해 다지역 경제의 투입산출 체계가 구성
  - 서해안권 경제의 투입산출 체계는  $X - CAX = CF$ 로 구성됨
  - 따라서 서해안권 경제의 지역별 산업 생산량은 지역 승수 행렬과 최종 수요 행렬에 의해서  $X = (I - CA)^{-1}CF$ 로 작성

서해안권 산업연관표

투입	배분	지역(인천~전북)						
		1	...	3	...	A	...	n
지역	1	$Z_i^{11}$	...	$Z_i^{13}$	...	$Z_i^{1A}$	...	$Z_i^{1n}$
	...	...	...	...	...	...	...	...
	3	$Z_i^{31}$	...	$Z_i^{33}$	...	$Z_i^{3A}$	...	$Z_i^{3n}$
	...	...	...	...	...	...	...	...
	B	$Z_i^{B1}$	...	$Z_i^{B3}$	...	$Z_i^{BA}$	...	$Z_i^{Bn}$
	...	...	...	...	...	...	...	...
	n	$Z_i^{n1}$	...	$Z_i^{n3}$	...	$Z_i^{nA}$	...	$Z_i^{nn}$
합계		$S_i^1$	...	$S_i^3$	...	$S_i^A$	...	$S_i^n$

## 다지역산업연관분석 파급효과

- 서해안권 다지역모형의 파급효과
  - 지역 생산의 변화에 따라 지역간모형의 효과는 지역 내 효과(intraregional effect)와 지역 간 효과(interregional effect)로 구분
  - 지역 내 효과는 최종 수요 1단위 변화에 따라 지역 내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지역 간 효과는 최종 수요 1단위 변화에 따라 지역 간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
  - 또한 지역 내 효과와 지역 간 효과의 합은 전국효과(national effect)로 최종 수요 1단위 변화에 따라 국가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하며, 본 연구의 경우 전국효과는 서해안권 효과를 의미
  - 지역 내 효과와 지역 간 효과는 생산효과, 소득효과, 고용효과로 세분화되어 구분이 가능하며, 지역 내 파급효과(intraregional effect), 지역 간 확산효과(interregional spillover effect), 그리고 지역 간 환류효과(interregional feedback effect)로 세분화됨
- 서해안권 다지역모형의 파급효과는 지역 내 효과와 지역 외 효과로 구분이 되며, 지역 내/지역 외의 생산승수, 고용승수, 부가가치승수로 구분됨
  - 지역내 생산승수는  $O_j^{AA}$ 와  $O_j^{BB}$ 에 의해 측정되며,  $O_j^{AA}$ 와  $O_j^{BB}$ 는  $O_j^{AA} = \sum_i \lambda_{ij}^{AA}$ ,  $O_j^{BB} = \sum_i \lambda_{ij}^{BB}$ 로 산출됨
- 지역 내 고용승수는  $j$ 제품 1단위 최종 수요의 변화에 의한 고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E_j^{AA}$ 와  $E_j^{BB}$ 에 의해서 산출되며, 산업별 부가가치계수  $z_{n+1}^A$ 와  $z_{n+1}^B$ 를 고려한  $E_j^{AA}$ 와  $E_j^{BB}$ 는  $E_j^{AA} = \sum_i z_{n+1}^A \lambda_{ij}^{AA}$ 와  $E_j^{BB} = \sum_i z_{n+1}^B \lambda_{ij}^{BB}$ 에 의해서 산출됨
- 지역 내 부가가치승수는  $j$ 제품 1단위 최종 수요의 변화에 의한 부가가치의 증가를 의미하며  $V_j^{AA}$ 와  $V_j^{BB}$ 에 의해서 산출되며, 산업별 고용계수  $z_{n+1}^A$ 와  $z_{n+1}^B$ 를 고려한  $V_j^{AA}$ 와  $V_j^{BB}$ 는  $V_j^{AA} = \sum_i v_{n+1}^A \lambda_{ij}^{AA}$ 와  $V_j^{BB} = \sum_i v_{n+1}^B \lambda_{ij}^{BB}$ 에 의해서 산출됨
  - 지역 간 생산승수는  $O_j^{AB}$ 에 의해 측정되며,  $O_j^{AB}$ 는  $O_j^{AB} = \sum_i \lambda_{ij}^{AB}$ 로 산출됨
- 지역 간 고용승수는  $j$ 제품 1단위 최종 수요의 변화에 의한 고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E_j^{AB}$ 에 의해서 산출되며, 산업별 고용계수  $z_{n+1}^A$ 를 고려한  $E_j^{AB}$ 는  $E_j^{AB} = \sum_i z_{n+1}^A \lambda_{ij}^{AB}$ 에 의해서 산출됨



- 지역 간 부가가치승수는  $j$ 제품 1단위 최종 수요의 변화에 의한 부가가치의 증가를 의미하며  $V_j^{AB}$ 에 의해서 산출되며, 산업별 부가가치계수  $v_{n+1}^A$ 를 고려한  $V_j^{AB}$ 는  $V_j^{AB} = \sum_i v_{n+1}^A \lambda_{ij}^{AB}$ 에 의해서 산출됨
- 지역 간 상호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확산효과(spillover effect)와 환류효과(feedback effect)를 추가적으로 고려 가능
  - 지역의 투입산출표는 지역의 제품 생산에 있어서 지역의 투입과 산출만을 고려함으로써 지역 간 교역에 의한 확산효과와 환류효과에 대한 고려가 배제됨
  -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간 투입산출표의 작성은 확산효과와 환류효과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역 간 교역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파급효과의 추정이 가능
- 반면, 지역 간 투입산출 모형은 각 산업 제품의 지역 간 흐름을 지역 내 산업으로부터 직접 조사하지만,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은 각 산업의 지역 간 교역을 고려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서해안권 개발계획으로 지역 간 산업의 교역을 상호 고려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서의 파급효과 외의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를 제시

## 2. 서해안권 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결과

### 1) 서해안권 지역 내 및 지역 간 효과

#### 서해안권 다지역산업연관모형 지역 내 효과

- 단일지역모형으로 분석된 결과는 해당 지역의 발달 이외에 서해안권에서의 교역을 고려하지 못함
  - 서해안권 개발계획으로 서해안권으로 파생되는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다지역모형의 적용은 지역 간의 교역을 고려함으로써 지역 내 효과와 지역 간 효과로 구분하여 최종 수요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를 구분함
  - 따라서, 서해안권 다지역모형은 지역 내 및 지역 간 승수를 사전적으로 구분하여 도출함

- 지역 간 산업의 교역을 고려한 경우의 효과는 지역 내 효과와 지역 외 효과로 구분되며, 이 중 단일 지역을 의미하는 지역 내 효과는 단일지역모형을 적용한 경우보다 절대값이 작은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서해안권 다지역모형의 승수가 지역 내 효과와 지역 외 효과의 합을 의미함으로써 지역 간 교역을 의미하는 지역 외 효과를 고려한 경우 단일지역모형을 고려했을 때의 효과보다 더욱 큰 파급효과를 나타냄
- 서해안권의 전체 생산승수는 1보다 크게 분석되어 서해안권 개발은 해당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 지역 간 교역을 고려한 인천광역시의 산업별 생산 증가는 농림수산물, 광산물, 건설업, 운수 및 보관, 교육 및 보건업 순으로 생산승수는 높게 나타남
  - 또한,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금융 및 보험 관련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인천광역시 부가가치는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농림수산물, 사회 및 기타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제조업, 공공행정 및 국방 관련 사업 투자로 인하여 고용은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됨
-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으로 견인되는 서해안권 산업 중 인천광역시의 생산효과가 가장 큰 산업은 운수 및 보관업으로 나타남
  - 지역에 대한 물리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4개 서해안권 기초지자체 중 각각 4위, 2위로 나타남
  - 더불어, 3차 산업 중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교육 및 보건업은 모두 2위로 인천광역시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역할 수행
  -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다 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운수 및 보관, 건설업,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교육 및 보건, 농림수산물, 광산물, 전력가스 및 수도업 순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서해안권 다지역모형 지역 내 효과 결과

구 분	인천			충남			경기			전북		
	생산 승수	부가가치 승수	고용 승수	생산 승수	부가가치 승수	고용 승수	생산 승수	부가가치 승수	고용 승수	생산 승수	부가가치 승수	고용 승수
농림수산물	1.0309486	0.5570442	0.0007978	1.0158276	0.6060644	0.0005840	1.0446887	0.5332605	0.0006477	1.0120662	0.6181701	0.0005176
광산업	1.0290170	0.6018194	0.0000000	1.0159934	0.5653949	0.0000000	1.0291556	0.5186916	0.0000000	1.0112667	0.5459150	0.0000000
제조업	1.0161975	0.2523254	0.0000003	1.0172205	0.2496767	0.0000020	1.0456120	0.2857228	0.0000015	1.0162710	0.2438389	0.0000046
전력, 가스 및 수도	1.0235702	0.2659614	0.0000000	1.0032693	0.3652895	0.0000000	1.0266884	0.2976009	0.0000000	1.0167141	0.5991092	0.0000000
건설	1.0264213	0.4663576	0.0000001	1.0152367	0.4536087	0.0000001	1.0440353	0.4757440	0.0000003	1.0100545	0.4626979	0.0000001
도소매	1.0187498	0.5942874	0.0000000	1.0168784	0.6226015	0.0000000	1.0325898	0.5996431	0.0000000	1.0201596	0.6212302	0.0000000
음식점 및 숙박	1.0149094	0.3811805	0.0000005	1.0177698	0.4144012	0.0000017	1.0385482	0.3863094	0.0000013	1.0140658	0.3886964	0.0000010
운수 및 보관	1.0257317	0.3918746	0.0000000	1.0113507	0.4799014	0.0000000	1.0160530	0.6008515	0.0000000	1.0079418	0.5175782	0.0000000
통신 및 방송	1.0164750	0.4768665	0.0000000	1.0221854	0.4907174	0.0000000	1.0370769	0.4924410	0.0000000	1.0273219	0.4884568	0.0000000
금융 및 보험	1.0143200	0.6051796	0.0000000	1.0199925	0.6340257	0.0000000	1.0206243	0.6130928	0.0000000	1.0237661	0.6130574	0.0000000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0203162	0.7282460	0.0000000	1.0105969	0.7506986	0.0000000	1.0208475	0.7215938	0.0000000	1.0121388	0.7509258	0.0000000
공공행정 및 국방	1.0164284	0.7218134	0.0000003	1.0118304	0.6807193	0.0000000	1.0216575	0.6860509	0.0000001	1.0175884	0.7433436	0.0000001
교육 및 보건	1.0250841	0.6856082	0.0000000	1.0118864	0.7327459	0.0000000	1.0314092	0.7090970	0.0000001	1.0132036	0.7048326	0.0000001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0048218	0.2640184	0.0000006	1.0224563	0.2320392	0.0000014	1.0437408	0.3392698	0.0000011	1.0184327	0.2830695	0.0000005

### 서해안권 다지역산업연관모형 지역 간 효과

- 서해안권 다지역모형 구축을 통한 지역 간 승수효과를 도출한 결과, 서해안권의 산업 간 연계는 충남, 경기, 전북 산업간 연계로 인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이 파생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 경기, 전북에 의해서 간접적인 지역 간 효과가 파생되는 산업은 제조업, 농림수산물, 건설업,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 및 숙박업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서해안권 타지역의 해당 산업 발전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생산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더불어, 인천광역시의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산업으로는 농림수산물, 건설업, 광산품, 제조업, 음식점 및 숙박업이며, 인천광역시의 고용이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산업은 음식점 및 숙박업, 사회 및 기타 서비스업,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인 것으로 분석됨
- 서해안권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는 지역은 인천광역시인 것으로 분석됨
  - 서해안권 개발로 인한 인천광역시의 산업은 각각 생산효과 1.4, 부가가치효과 1.9, 고용효과 1.5에 해당하는 간접적인 효과 순위를 나타냄

#### 서해안권 개발로 인한 해당 지자체 효과 순위

구 분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효과			
	충남	인천	경기	전북	충남	인천	경기	전북	충남	인천	경기	전북
농림수산물	3	1	2	4	3	1	2	4	3	1	2	4
광산품	1	2	3	4	4	1	3	2	1	2	3	4
제조업	3	1	2	4	3	1	2	4	3	1	2	4
전력, 가스 및 수도	4	1	2	3	4	3	2	1	4	1	3	2
건설	3	1	2	4	4	1	2	3	3	1	2	4
도소매	1	2	4	3	1	2	4	3	1	2	4	3
음식점 및 숙박	3	1	2	4	1	2	4	3	1	2	3	4
운수 및 보관	1	2	3	4	1	4	2	3	1	2	3	4
통신 및 방송	2	1	3	4	1	2	4	3	2	1	3	4
금융 및 보험	2	1	4	3	2	3	4	1	2	1	4	3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	2	3	4	1	2	4	3	1	2	3	4
공공행정 및 국방	2	1	3	4	2	1	4	3	2	1	3	4
교육 및 보건	3	2	1	4	2	3	1	4	3	2	1	4
사회 및 기타 서비스	2	1	3	4	2	1	4	3	3	2	1	4
평균 순위	2.2	1.4	2.6	3.8	2.2	1.9	3.0	2.9	2.1	1.5	2.6	3.7

서해안권 다지역모형 지역 간 효과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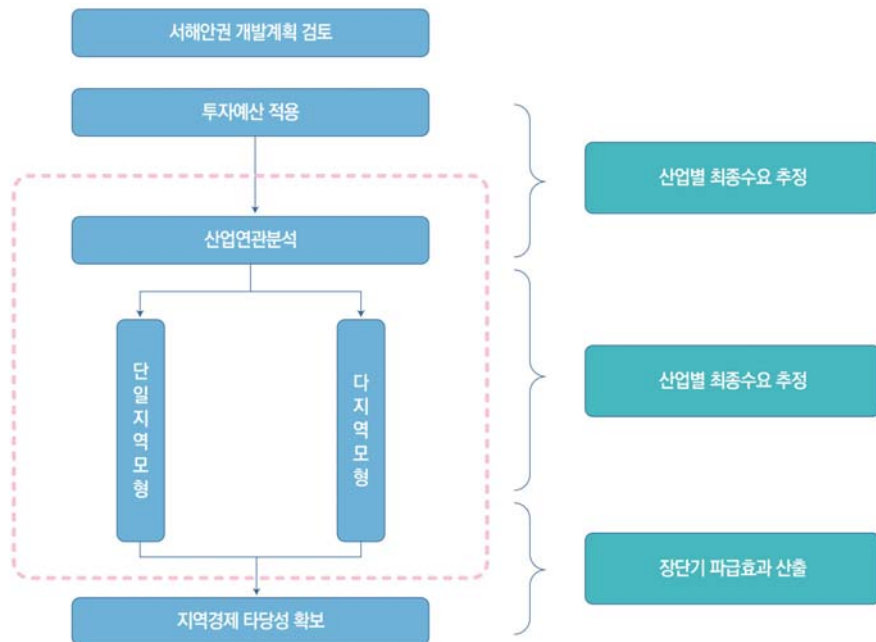
구 분	인천			충남			경기			전북		
	생산 승수	부가가치 승수	고용 승수	생산 승수	부가가치 승수	고용 승수	생산 승수	부가가치 승수	고용 승수	생산 승수	부가가치 승수	고용 승수
농림수산물	0.0134028	0.0072638	0.0000107	0.0052482	0.0031312	0.0000030	0.0093867	0.0047915	0.0000060	0.0043608	0.0026636	0.0000022
광산업	0.0070298	0.0041037	0.0000277	0.0078136	0.0043482	0.0000131	0.0061757	0.0031125	0.0000194	0.0054595	0.0029472	0.0000232
제조업	0.0162836	0.0039929	0.0000498	0.0086025	0.0021115	0.0000161	0.0118326	0.0032334	0.0000427	0.0056168	0.0013477	0.0000146
전력, 가스 및 수도	0.0082641	0.0021629	0.0000037	0.0023270	0.0008473	0.0000021	0.0056927	0.0016501	0.0000067	0.0031640	0.0018644	0.0000260
건설	0.0126090	0.0057449	0.0000452	0.0067533	0.0030174	0.0000205	0.0117353	0.0053475	0.0000444	0.0056195	0.0025743	0.0000266
도소매	0.0052983	0.0030677	0.0001405	0.0055085	0.0033727	0.0001813	0.0031743	0.0018434	0.0000753	0.0032999	0.0020095	0.0001140
음식점 및 숙박	0.0086281	0.0032283	0.0002665	0.0085277	0.0034722	0.0002824	0.0085774	0.0031905	0.0002431	0.0069130	0.0026498	0.0002463
운수 및 보관	0.0040108	0.0015486	0.0000165	0.0041828	0.0019848	0.0000555	0.0023445	0.0013864	0.0000473	0.0017933	0.0009208	0.0000298
통신 및 방송	0.0048917	0.0022742	0.0000120	0.0042827	0.0020560	0.0000237	0.0022408	0.0010640	0.0000053	0.0022303	0.0010605	0.0000116
금융 및 보험	0.0024035	0.0014310	0.0000156	0.0019249	0.0011965	0.0000161	0.0011333	0.0006808	0.0000074	0.0016906	0.0010124	0.0000167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0.0025447	0.0018270	0.0000179	0.0033556	0.0024926	0.0000184	0.0014924	0.0010549	0.0000087	0.0012294	0.0009121	0.0000091
공공행정 및 국방	0.0031389	0.0022206	0.0000329	0.0030042	0.0020211	0.0000203	0.0021033	0.0014124	0.0000139	0.0015549	0.0011358	0.0000141
교육 및 보건	0.0040017	0.0026993	0.0000336	0.0034506	0.0024987	0.0000557	0.0047760	0.0032835	0.0000756	0.0020560	0.0014302	0.0000333
사회 및 기타 서비스	0.0089696	0.0023102	0.0002144	0.0074840	0.0016984	0.0001148	0.0073586	0.0023919	0.0000923	0.0053171	0.0014779	0.0001077

### 3. 주력산업부문의 영향력 분석

#### 주력산업 적용안

- 지역구분에 따른 단일산업연계 및 서해안권 다지역산업연계 분석
  - 서해안권 개발계획의 파급효과 추출을 위한 기본 자료는 한국은행의 지역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기존 연구와의 정합성을 유지
  - 반면, 파급효과 관련 기존 연구의 경제적 효과 산출이 항목별 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추산하였으나, 본 연구는 서해안권 개별 시도별 다지역연관표를 작성하여 추출함으로써 간접효과에 대한 상호 관계를 고려한 점에서 차별화
  - 서해안권 해당 시도에 대한 지역별 구분에 따른 산업연관분석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단일 산업연관분석, 서해안권은 서해안권 MRIO 구축에 따른 다지역산업연관표를 구축하여 서해안권 전체 시도의 MRIO 구축에 따른 다지역산업연관분석을 적용
  - MRIO 분석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편성

#### 서해안권 개발계획의 파급효과 분석 구분



- 서해안권 개발계획 산업구분 연계
  - 본 연구는 서해안권 개발계획의 파급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28개 산업분류를 14개로 재분류하여 편성
  - 서해안권 개발계획의 예산 항목은 백만 원 단위로 1~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적용
- 간접적인 서해안권 개발계획의 적용은 인천을 제외한 경기, 충남, 전북의 1~3차 산업에 의한 효과로 제시
  - 인천광역시 외 서해안권 내 타지역에 의한 영향을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
  - 최소 1개 지역, 최대 3개 지역 연계협력 사업으로 추진 고려
- 주요 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 적용
  - 인천광역시의 5대 주요 산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교육 및 보건,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 서비스로 구성

### 지역별/산업별 주력산업 변화에 따른 영향력

- 지역별 주력산업 변화가 서해안권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업/제조업/농림어업 순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인천광역시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천광역시 지역 내 효과는 충남 및 전북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견인되는 간접적인 효과보다는 크며, 경기도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유발되는 간접효과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산업별 변화에 따른 영향력 결과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생산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효과	
지역 내	인천	1차	2.08	1.17	0.00
		2차	3.11	1.00	0.01
		3차	9.22	4.87	0.12

구 분		생산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효과	
지역 간	경기	1차	2.09	1.06	0.00
		2차	3.15	1.07	0.01
		3차	9.30	5.16	0.13
	충남	1차	2.04	1.18	0.00
		2차	3.05	1.07	0.01
		3차	9.19	5.06	0.14
	전북	1차	2.03	1.17	0.00
		2차	3.06	1.31	0.02
		3차	9.18	5.12	0.16

- 서해안권 개발계획에 대한 1~3차 1백만 원 투자는 인천광역시의 생산효과는 1차 산업 2백만 원, 2차 산업 3백만 원, 3차 산업 9백만 원, 부가가치효과는 1~3차 산업별 각각 1.17배, 1.31배, 5.12배가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3차 산업에 대한 고용유발은 1백만 원당 0.0049명, 0.02명, 0.16명 유발되어 3차 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보다 많은 고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산업별 변화에 따른 최소/최대 영향력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생산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효과
최소 효과	1차	2.03	1.17	0.0049
	2차	3.06	1.31	0.02
	3차	9.18	5.12	0.16
최대 효과	1차	6.17	3.41	0.01
	2차	9.26	3.46	0.03
	3차	27.66	15.35	0.42



- 또한, 인천광역시 산업특화도, 경쟁력, 타산업 성장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선정된 5대 주력산업에 의한 효과는 사업별 1백만 원 투자에 의해 1 이상의 생산효과, 최대 0.7배의 부가가치 효과, 0.025의 고용효과가 유발됨

Ⅰ 인천광역시 5대 주력 사업 변화에 따른 영향력 및 순위 Ⅰ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생산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효과	생산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효과
제조업	1.045	0.256	0.003	1	5	5
건설업	1.036	0.472	0.004	2	2	4
교육 및 보건	1.020	0.688	0.009	4	1	2
운수 및 보관	1.019	0.393	0.004	5	3	3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34	0.266	0.025	3	4	1



## 서해안권 사업 활성화 및 상생발전 방안

### 1. 사업 활성화 방안

#### 지자체별 주력 산업을 고려한 사업 방향 설정

- 과거 및 현 흐름에만 몰입한 사업 방향 설정을 지양하고 향후 실질적인 성과를 견인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을 사전적으로 수행
  - 정책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고려
  - 수요자가 국민 및 지역임을 감안하여 정책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지역경제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제시
  - 정책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효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

#### 지역 간 갈등 유발 소지 보유 사업의 배제

- 지역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의 발굴은 지양
  - 향후 지역 간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대신 시너지 효과에 의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
  - 지역별/단계별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정책변화 정도에 따른 실증적인 결과를 양극화 측면에서 고려

####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 현재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외에 서해안권 내 해당 지자체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 현재의 사업개발의 실체도 사업발굴에서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미래 지향성 및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개발 및 투자 집중

### 상호 협력적 방식 지향

-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 개발을 위해 주체 간의 협력적 방식을 지향
  - 사업추진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발굴 및 개발에서의 과정상 협력도 중요함을 고려하여 협력적인 운영체계 형성

### 분권적 상생협력발전 추구

- 궁극적으로는 분권적, 자생적 차원의 지역 간 연계협력을 지향
  - 중앙의 지원에 의한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은 선발전 후배분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포용성장을 고려한 개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분권형 개발방식의 적용 고려
  - 하향적 협력발전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분권적, 자생적 지역협력의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지향

### 연계협력 추진체계 구축

- 비법인으로 협의기능(의결기능)을 가지며, 지자체가 권리주체로서 법인격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 운영
  - 설치가 용이하며, 지자체간 규약을 정하여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협력방식 적용
  - 협력대상사무에 제한이 없어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별도의 법인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독자성에 제한이 없는 특성 활용

- 장수벨트협의회(구곡순담협의회)
  - 전북 순창, 전남의 곡성·구례·담양 등 4개 군이 '03년 장수벨트협의회 창립
  - “장수” 테마로 지역브랜드화 작업을 추진, 은퇴자 귀농, 시니어클럽 운영, 100살 잔치 등 농업, 관광, 정주환경의 부문의 연계협력사업을 공동추진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 섬진강 수계 11개 시, 군(남해, 하동, 광양, 순천, 구례, 곡성,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과 6개 관련 기관으로 구성하여 '97년 행정협의회 창립
  - 섬진강 수계의 환경보존과 어족 보전을 위한 방류행사 등 생태관광사업을 추진 시 환경부와의 의견충돌 등을 해소하는 환경보전사업 공동 추진
- 금강권관광벨트협의회
  - 금강을 사이에 둔 전북 익산과 군산, 충남 공주, 논산, 부여, 서천 등 금강 유역의 6개 시군이 결성한 협의회
  - 관광인프라 구축과 교류를 위하여 백제문화권과 연계해 금강권역의 관광상품, 코스, 이벤트 등을 공동 개발하고 관광홍보물을 공동 제작

###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사업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과제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 사업특성에 맞는 적절한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사후관리방안을 검토
- 사후관리방안에는 (i) 사업추진기구에서 수행하는 방법, (ii) 특정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iii)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구에 위탁하는 방법 (iv) 참여 자치단체가 각각 추진하는 방법 중 사전 선택 고려
-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적절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자치단체 간 합의로 결정
- 사후관리계획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참여 자치단체 간 분쟁 시 해결 방안, 사후관리를 위한 행정사항 등 포함
-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의 사후관리를 추진하되,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편성 등 필요한 절차 수행

Ⅱ 사후관리 방안 상호 비교 Ⅱ

구분	내용	장점	단점
사업추진 기구 수행	연계사업 사업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 간 정책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추진기구 운영</li> <li>• 사업의 목적에 맞는 전반적/통일적 진행 용이</li> <li>•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사업의 진행 용이</li> <li>• 자치단체간 협력으로 인한 범위의 경제 발생</li> <li>• 사업추진 기구에 대한 공동 설립으로 강한 집행력 수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자치단체가 연계되어 설립절차가 복잡</li> <li>• 자치단체간 갈등발생시 조정에 대한 대안 필요</li> <li>• 자치단체간 상이한 입장으로 연계협력 목적 실현을 위한 갈등 발생</li> <li>• 자치단체간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 시스템 필요</li> <li>• 사후관리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 보급 필요</li> </ul>
특정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위탁	대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기관에 위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통일적 전담 수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원분담율에 따라 운영과정상 왜곡현상 발생 우려</li> <li>• 특정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선정에 따른 갈등 발생</li> <li>• 자치단체 간 갈등 발생 시 조정/해결을 위한 위원회 필요</li> </ul>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구 위탁	각 분야에 특화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을 통한 자치단체의 부담 및 행정업무역량 절감</li> <li>• 지역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고용 유발</li> <li>• 지역의 사업 관련 협회 및 동호회 등 단체에 위탁관리로 향후 발생하는 사용료의 일부를 재투자</li> <li>• 추후 수탁단체 등을 마을기업 등의 창업으로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관리를 위한 전문성 미흡으로 전문가와의 공조를 통한 관리 필요</li> <li>• 민간기구의 수익성 창출을 위해 연계사업의 목적과 다른 특정 분야에 치중된 사업 관리 발생</li> <li>• 위탁계약기간의 체결(5년 이내)과 연계협력사업기간과의 불일치 발생</li> </ul>
자치단체 개별 추진	자치단체별 관리부서 및 사업소 활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별 분리 관리로 관리절차 및 이해조정비용이</li> <li>• 설립 및 관리절차가 간편하여 관리기구 설치에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협력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한 통합 관리 곤란</li> <li>• 연계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자치단체간 협력체계 미흡</li> <li>• 연계협력사업 목적과 부합되는 자치단체별 주기적 점검 필요</li> </ul>

민간위탁의 활성화

- 지자체의 비용 감소와 조직·인력 감축 등 경제적 능률성 제고
- 민간부문의 창의와 전문성을 활용하고 경쟁에 의한 서비스 공급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내 민간부문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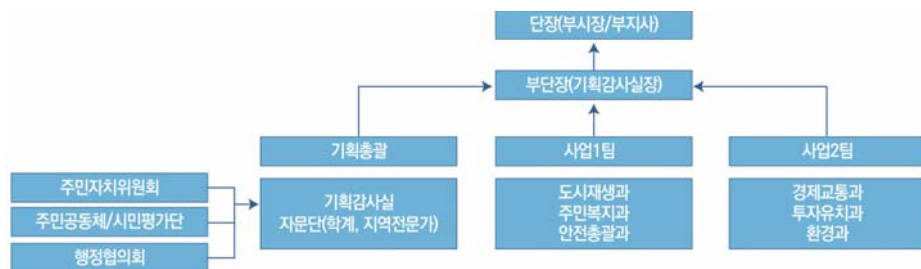
-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는 관련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리산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을 추진
- 지리산 둘레길의 조성을 ‘사단법인 숲길’에 위탁하고, 사단법인 숲길에서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추진
- 사업 진행 중 민간위탁 대신 지자체로 이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

## 2. 상생발전 방안

### 지자체 및 관계부처 간 협력적 추진체계

-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조직간 상호 역할 분담으로 효율성 증대
  - 단장 : 사업계획 방향제시 및 추진 총괄지휘(부시장 및 부지사)
  - 부단장 : 실무 총괄
  - 기획총괄팀 : 발전계획 수립 실무총괄, 시안작성 및 검토, 수립 검토
  - 사업1팀 : 하드웨어 분야 단위사업 집행
  - 사업2팀 : 소프트웨어 분야 단위사업 집행

#### 사업추진 조직(안)



- 전담조직 보조역할의 행정협의회 및 추진위원회 운영
  - 주민 및 마을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자발적 의견 개진으로 주민참여 독려와 관련 주체들 간의 원활한 합의로 사업진행 주도

- 주민자치위원회 및 민간협력단체 : 통장, 마을기업위원, 봉사단장, 마을주민 등
- 행정협의회 : 김제시청 도시과 담당 및 실무자, 용성리 실무자
- 자문 및 전문기관 : 지역활성화 전문가, 컨설팅 전문기관

## 사업추진 협력 방안

- 지역별 자원 창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사업추진, 연계협력 및 사후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 구성 : 해당 부처 담당자, 사업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주민참여단
  - 역할 : 사업별 운영 및 추진방향 논의, 사업추진 계획, 연계협력 추진방안 협의, 센터 운영 방안 검토, 사후관리 및 재원분담방안 검토
  - 운영 : 주민수요 반영을 통한 사업 수정 및 보완, 지원센터 설치 전 협의회 개최를 통한 수정사항 논의, 협의회(분기별 1회, 연 4회) 정기개최를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 BY2C연계협력사업단
  - 참여지자체 : 봉화군, 영양군, 영월군, 청송군 등 4개 지자체
  - 2010년 7월 BY2C연계협력사업단 구성(경북북부연구원 내)
  - 4개 지자체(공동출자, 공무원파견)와 경북북부연구원(사업단 운영), 한국생산성본부(역량강화 지원)가 역할분담
  - BY2C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외씨버선길 조성, 주민참여형 기반강화사업, 공동 홍보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 대청호 오백리길 녹색생태사업단
  - 대전발전연구원에 대청호 5백리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녹색생태사업단'을 구성
  - 조직은 사업단장(4급), 대외협력, 관광개발, 지역개발, 관광홍보, 예산·회계 6인으로 구성
  - 주요사업은 대청호를 중심으로 전체 21개 구간(약 200km)에 조성 중이며, 현재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삼림욕장정비, 식문화체험시설 구축, 생태체험로 일체화 정비 등의 하드웨어 구축사업과 함께 홍보안내책자발간, 스토리개발, 홈페이지 리뉴얼 등의 여행정보 시스템 제공

- 협력적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협력 운영
  -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공모지원 계획 공유, 사업 방향설정을 위한 주민 인터뷰
- 사업 방향설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축 및 운영
  - 현황 파악 및 연계 사업 발굴, 세부사업 설명회 개최
- 주민자치규약 제정 및 적용
  - 취약한 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자원 활용 도시재생으로 정주 환경 개선
  - 주민 간 자발적 참여로 더불어 잘 사는 마을 구축을 위해 주민자치규약을 제정과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에 주민참여 지속 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와의 협업을 통한 생태계조성
  - 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 사전협의 내실화 : 상세사업계획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참여 시군 의견 최대한 반영
  - 주간/월간 사업진도 관리 : 사업 추진 정보 공유
  - 지원사업 선정평가 공동운영 : 시도 간 기계적 균형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과 달성 가능 성과 수월성을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
-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시 협력단 내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각 참여기관의 의견 반영
  - 각 참여기관은 자체 발굴한 사업 추진 상 문제점, 기 지원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
  - 신규 지원대상 발굴 및 전복 차원으로 확대하여 본 사업 확장 방안 모색

### 참여 기관 간 분쟁(의견대립) 조정방안

- 의견이 대립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협의회 조정을 통한 해결 도모
- 분쟁조정 기구 마련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주민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기관으로 지역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 수행
  -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이 감독 및 모니터링을 실시



- 협력단 : 참여기관 간 갈등 중재
  - 사업 계획 변경 심의를 통해 세부사업 목표 조정 및 할당 목표 조정에 대해 숙의 및 의결
- 주민설명회, 설문 등을 수시 실시
  - 사업 추진 전, 중, 후 수시 설문조사를 통한 분쟁 사전 예방

**관련 지자체가 협의하여 사업의 개선을 위해 점검, 관리해야할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체크리스트로 작성**

- 1단계 : 사업유형 및 참여기관 등에 따라 실태 파악 및 문제의 원인 분석
- 2단계 : 스스로 해결 가능한 문제와 해결 불가능한 문제로 구분
  - 개별 지자체의 문제인지 협력지자체의 문제인지 등 파악
- 3단계 : 추진체계가 스스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 경우 해결방안 탐색 후 해결을 위한 지원 제공
- 4단계 : 자체 해결 불가능한 문제의 경우 상위기관의 도움 요청, 외부자문위원을 활용한 문제해결, 그리고 시행기관과 협의를 통한 사업목표의 재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실시
- 5단계 : 문제 해결 후 사후 점검하고 문제점 공유를 통한 재발 방지

**Ⅰ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예시) Ⅰ**

일 시		담당부서(담당자)	
사업명			
모니터링 체크리스트(O 적절 △ 미흡 X 불량 V 확인필요 - 해당없음)			
	구 분	확 인	비 고
협 력	• 해당 지자체간 의사소통을 수시로 하여 사업 관련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는가?		
	• 해당 지자체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가?		
	• 각 지자체장이 연계협력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의하고 있는가?		
	• 유관기관과 연계협조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실행	•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 자원투입(예산 등)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 사업실행 중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이해관계자의 공감대가 지속되고 있는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사업 진행과정에 만족하고 있는가?		
	•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만족하고 있는가?		
관리	• 기존에 발생하였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방안 및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가?		
	•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외부전문가가 구성되어 있는가?		

■ 참고문헌 ■

- 김경수·김형빈, 2006,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격차 분석 :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1): 129-149.
- 김덕준, 2003, 지역개발격차의 측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41(4): 279-308.
- 김의준, 1995, 경기도내 지역개발격차 분석 : GIS의 적용, 『경기21세기』, 3: 132-143.
- 박호정·김태기·나주몽, 2007, 지역 제조업의 기술적 효율성 차이와 수렴성,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42(7): 169-182.
- Barro R. and Sala-i-Martin X., 2004, Economic growth, New York: McGraw-Hill.
- Bettina A. and Alan H., 2005, Regional output difference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Spatial inequality and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Dougherty, C., and Jorgenson, D., 1995,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6(2): 25-29.
- Lucas R. E., 2000, Some macroeconomics for the 21st centur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4: 159-168.
- Massey, D., 1995, Spatial division of labor: social structures and the geography of production, Macmillan.
- Young, A., 1994, Lessons from the East Asian NIC's. A Contrarian View, European Economic Review, 38: 964-973.